

머 리 말

흔히 어른들은 지난 날 자신들의 청소년기로 미루어 지금의 청소년을 보는 버릇이 있다. 지내 보았으니 자기들이 청소년기를 더 잘 알고 있고 또 자신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그때의 자기의 문제, 사고, 이상, 규범 등으로 오늘의 청소년을 보고 청소년 문제를 해석·판단·대처하려 한다.

그러나 이를 한결음 물러서 생각해 보면, 20년 전의 청소년들이 지금 어른이 되고 그때의 어른들이 청소년을 문제삼아 우려하던 말들을 이제는 자신들이 “요새 젊은 놈들은……”라는 접두사로서 발언을 시작하는 한 정형화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정형화된 인식이란 한 마디로 청소년들을 어른의 안정, 좀 더 과장되게 말한다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어른들의 안정이 정말로 청소년들을 보는 데 적합하고 타당한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개발되었다. 지금껏 우리는 청소년을 문제의 관점에서 그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원인-결과’의 좁은 틀로서 보아 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청소년 문제에는 이러한 접근의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 관한 일반화된 지식이나 사실보다 역동적이고 발달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상황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나 통찰을 보다 강조함을 의미한다. 청소년 문제를 역동적이고 발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청소년들의 관심의 상태, 청소년들의 경험된 딜레마 그리고

청소년들과 어른들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이해나 통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른들이 쓰는 안경의 적절성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공통의 관심사의 주변에서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책(시리즈)에서는 청소년과 부모관계, 청소년과 학습·진로문제, 청소년과 이성문제, 청소년과 비행, 그리고 청소년과 정신건강 등의 5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어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로 제시된 10개의 주제들은, 이 책을 읽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에 관해 지금까지 당연시해 왔던 전제들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 반성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이 자료집을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체육청소년부와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진들의 창의와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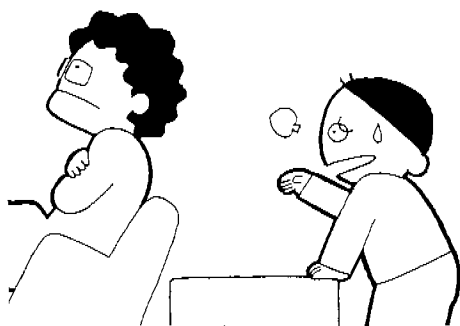
1990. 12

한국청소년연구원
원장 이 윤 구

차 례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시험불안 성공의 필요악인가
체벌은 과연 사랑의 매인가
청소년의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
청소년의 자살 누구의 책임인가
소외감에 상처입은 여린 가슴
무심코 던진 부모말에 멎드는 아이 가슴
부모는 자녀의 거울
부모의 높은 기대 자녀의 스트레스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누가 살펴야 하는가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16세 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딸로 둔 K부인은 요즘 갑자기 달라진 딸의 태도에 몹시 당황하고 걱정이 여간 아니다. 언제나 고분고분하고 얹전하기만 하던 딸이 요즘에는 조금만 잔소리를 해도 말대꾸를 하고, 심지어는 방문을 잠그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 드는 통에 무엇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해 보지만 도무지 이유

를 모르겠다며 답답해 한다.

또 18세 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어머니인 L부인은 요즘 자기 아들의 책가방을 뒤져보면 이상한 여자사진이 있는 책들이 몇 권씩 들어있다면서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큰일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하긴 하지만 화만 내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한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걱정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문제로 병원을 찾는 부모들이 부쩍 늘어났지만, 청소년자녀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정상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들어나면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을 찾게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정상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어린이와 어른사이의 중간단계에 해당되며, 장치 독립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를 잘 넘긴 사람은 가족 이외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또 미래의 직업에 대한 방향도 잘 설정이 되어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도달한 자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루며 잘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과정에서는 먼저 사춘기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다. 사춘기란 어린이의 신체가 어른의 신체로 바뀌는 시기로 이는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시작되고 조절된다. 여자의 경우 평균 12세경

부터, 남자의 경우는 평균 14세경부터 시작되는데 신체가 커지고 생식기관과 성기가 발육되며 남자의 경우에는 얼굴에 수염이 나고 목소리에 변화가 오게 되며, 여자의 경우에는 유방이 커지고 둔부가 커지게 된다. 또 뇌의 성숙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발달하게 되어 구체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인지기능의 발달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세계를 넓혀주며, 사회적 행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신체적 성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일은 성숙한 자아의 확립과 인격의 확립이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기 동안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첫째 : 의존에서 독립으로

둘째 : 주체성 확립

셋째 : 친교의 확립

이 세 가지 과제는 청소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전 인생을 통해서도 지속되는 것이다. 이제 이 세 가지 과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첫번째 과제는 의존적인 사람에서 독립적인 개체로 변하는 일이다. 이제까지 부모에게 의지해 왔었던 마음가짐을 버리고 독립된 사람으로 변하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먼저 부모나 다른 어른들에게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된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며 한편으로는 부모의 조언이나 간섭에 대한 분노심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부모와는 독립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문제에서나 자기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예를 들면 옷, 머리스타일의 선택, 친구의 선택, 장래 학교와 전공과의 선택 등에서 자

신의 주장을 고집하여 때로 부모와 의견대립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결과 심한 정서적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 이때 종교에 의지하거나 청소년단체, 또는 동료집단과 어울림으로써 그러한 혼란을 이겨내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여러 대상으로부터 얻은 많은 가치체계를 그들 자신의 가치체계에 혼합시키며, 그 결과 새로운 가치체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외존에서 독립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이런 점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들은 너무 강압적인 방법으로 청소년자녀들을 대해서는 안된다. 가벼운 충고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두번째 과제는 주체성의 확립이다. 자녀들은 일차적으로는 부모를 닮지만 청소년기 동안에는 종교적 지도자나 학교 선생님, 이웃 어른, 친척 그리고 친구 등 주위 많은 사람들의 특성을 본받아 자기의 특성과 합쳐 새로운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형성된 주체성이 마지막 결정체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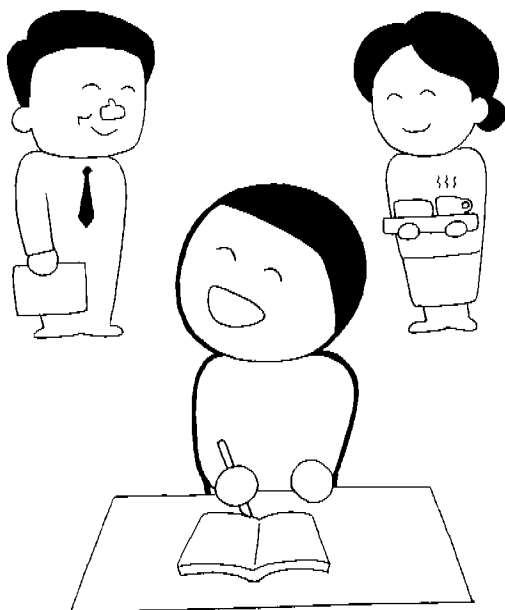
청소년들은 이렇게 형성된 주체성을 기본으로 하되 여러 가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대별, 문화별 차이에 따른 요구에도 적응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런 점들을 알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부모들의 어린시절 동안의 기준만으로 자녀를 대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 과제는 친교의 확립이다. 장차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인간관계가 필수적이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의 인간관계는 근본적으로 어린이 대 어른의 관계였지만 이제부터는 대인관계의 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고, 성숙한 인간 대 인

간으로서의 인간관계를 익혀 나가야 할 시기이다. 이 과정은 후기 청소년기 동안 시작되어 평생동안 지속되게 된다. 어린 시절 동안 어린이들은 의존적인 입장에서 부모를 필요로 하고 의지하며,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부모와 하나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러나 독립된 입장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필요로 하지만, 서로 각자의 경계는 유지해야 한다. 청소년기에서는 이런 종류의 친교를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3가지 심리학적 과업에 대해 살펴 보았다.

다음은 심리학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중의 하나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청소년기는 어린이 시기와는 달리 신체적인 발달에 따라 성적 욕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일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된다. 게다가 서구에서 밀어닥친 성 개방 풍조는 우리의 청소년층에까지도 영향을 주어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아직은 사회적으로 제한이 많은 연령이기 때문에 상상이나 자위행위를 통해서 성의 욕구를 처리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성교제를 원하기도 한다. 이때 부모가 잘못 개입을 하게되면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게 된다. 그냥 내버려 두어서도 안되겠지만,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좋지 않다. 어느 정도는 건전한 이성교제를 허용하면서 나쁜 길로 빗나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점은 부모들이 먼저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추상적 사고능력의 발달과 함께 청소년들은 새로운 사실,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느낌들을 접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들은 창조적 사고에 자극을 받게되어 창조성을 발휘하게 된다. 시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문학, 음악, 예술 그리고 다른 형태의 창조적 작업에 열중한다. 이때 부모들이 이런 면들을 무시하고 공부만 강요하다 보면 역효과가 나기 쉽다. 어느 정도는 허용하면서 스스로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학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취감은 기쁨을 주고, 또 새로운 성취에 대한 동기를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앞으로 한 독립된 성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인간관계와 함께 사회인으로서의 기본태도를 확립해야만 된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그늘 밑에서 미성년자로 살

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한 독립된 사회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배워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체계와 도덕성을 재확립해야 하며, 사회화 과정을 배워야 한다. 이때 부모나 다른 주위 어른들로부터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이다.

청소년기 동안에는 새롭게 형성된 자기주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체계를 발달시키게 된다. 어릴 적에는 대부분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게된다. 그런 과정에서 부모의 가치체계로부터 분리되면서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또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도덕관념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생활환경에 맞도록 바꾸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부모나 다른 의미있는 대상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지만, 점차적으로 자기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때 어린시절부터 지속되어온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올바른 도덕관념이 형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릇된 도덕관념이 형성되기도 한다.

어린시절 동안에는 가족이 어린이의 중요한 대상이지만, 청소년기 동안에는 가족보다는 친구나 학교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정신적 독립을 위해서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게 되는데, 이것은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부모와의 접촉을 피하려고 하고 그 대신 외부적인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려고 한다. 가정은 단지 쉬는 장소이며, 의·식·주를 해결하는 장소로만 생각하게 된다. 그 대

신 그들이 바라는 것은 어른의 간섭이 적고, 같은 흥미를 가진 친구들과의 세계인 것이다. 사회적 성장과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주된 장소도 바로 친구들과의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가정에서 멀어졌다고 서운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친구관계에서는 지금까지 성장하는 동안 형성된 인격의 특성에 따라 참여하는 동료집단의 종류가 결정되게 되는데 좋지 못한 친구들을 만날 경우 무조건 못 만나게만 해서는 안된다. 잘 달래보고 안될 때는 전문가를 만나 상의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더 깊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란 청소년 자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게도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이다.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올바른 성인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이때 대개는 그들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를 지도하려고 한다. 그들 자신의 경험이란 과거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교육시켰던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떤 것은 과거 부모의 방식 그대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부모의 방식과 정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과거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이때문에 청소년자녀와 여러가지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한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기방식대로 강요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심한 저항감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까지 정상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발달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소년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을 잘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에 해당된다.

과거와는 달리 신체가 커지고 성적 기관이 발달하게 되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뇌의 성숙으로 인하여 사고영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모나 학교로부터 배워온 점들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점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큰 혼돈을 느끼기도 한다. 또 지금까지는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이런 변화와 더불어 부모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은 정신적 혼란과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정서적 혼란의 시기라고 부른다.

우리들은 흔히 청소년기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많은 정신적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런 점에 대해 이해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한 공감을 느끼며 청소년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신적, 정서적 특성에 대한 이해나 배려 없이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험 불안 성공의 필요악인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낌으로써 생기는 불쾌한 감정이다. 한 개인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환경적인 요구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환경적 요구에 대하여 자신있게 대처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이러한 상황을 스

트레스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즉 환경과 개인과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외적 환경적인 요인으로서의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기의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경우 청소년들이 시험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 일본의 경우 입시 경쟁이 하도 치열하여 재수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통념으로 생각되어 입시 학원의 시설이나 운영이 정규 학교를 방불케한다. 대만의 경우도 전가족이 이민을 떠나는 첫째 이유가 자식을 위해 입시 지옥을 피해 외국으로 간다는 것이니 그 사회의 입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실시되었고 이어 1974년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실시되어 어린 나이의 아동이 겪었던 고통이 표면적으로는 다소 수그러 들었으나 1981년 중고교생 과외 금지 조치 이후 망국적 비밀 과외가 등장하여 비밀 과외로 인하여 형사 처벌까지 되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건이 생겼다. 매년 과열 입시 해소책으로 고교 내신 성적 반영, 선지원 후 시험제, 논술고사 폐지, 주관식 문제 가미, 대학 입학 정원제 환원, 중고교생 부분적 과외 허용, 적성검사 도입 고려 등 여러 교육 개혁 조치가 있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커서 근본적 문제점 해결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수시로 바뀌는 입시 제도로 인해 교사, 학부모 및 수험생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앞으로 닥칠 내년도 입시 경쟁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 하니 올해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좌절을 맛보아야 할 것인가? 이로 인하여 극단적인 행동인 자살을 하는 학생은 얼마나 증가할 것이

며 얼마나 많은 학생이 비생산적인 재수 학원으로 가야할지를 생각해 보면 이는 수험생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떠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먼저 과열된 입시 경쟁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수험생들이 겪는 입시 스트레스 중후군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입시 불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또한 입시 불안은 과연 필요악인가에 대해 살펴보자.

시험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개인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시험에 대한 실패 경험, 실패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 경험, 실패를 받아들이는 본인의 태도, 본인의 실패에 대한 만회 가능성, 소심한 성격적인 특성, 주위 사람들의 기대 수준 및 본인의 욕구 수준과 현재 학업 성취 수준 및 능력과의 격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 등이 시험 불안의 유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가정이나 학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인 과열 입시 문제를 떠나 시험 불안을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과열 입시 경쟁의 저변에 깔린 사회 심리를 열거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류집착증’을 들 수 있다. 일류 대학뿐 아니라 뭐든지 일류 아니면 성에 차지 않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각자의 삶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결과 부화뇌동하여 남들이 좋다는 것은 무조건 따라가려는 사회 풍토가 입시 과열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로 전문 기술인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가 부족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대의 고도 산업사회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한다. 올해 취업률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반대학 취업률이 50%를 약간 상회하는데 비해 전문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은 오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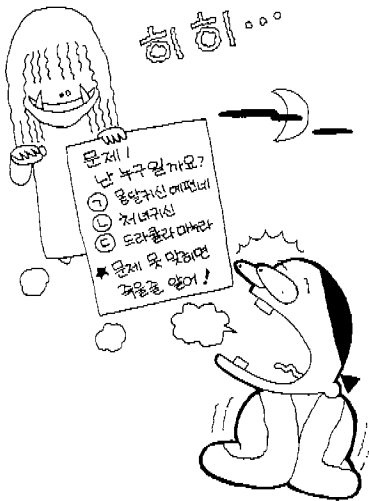
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너무 많은 교육적 낭비를 하고 있다. 진정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나태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셋째로 극도의 개인주의 경향이 팽배한 전반적 사회 분위기에 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 이겨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는 출세지향적 사고가 팽배해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경험과 전인적인 교육이 도외시되고 근시안적인 점수 벌레로 전락시키는 교육의 심한 편중·왜곡 현상을 낳는다 하겠다. 이러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입시스트레스 증후군이란 새로운 낱말이 생겼다.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 (school entrance stress syndrome)이란 소위 ‘중3병’, ‘고3병’ 등을 말한다. 이는 진학을 앞둔 수험생이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겪는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복합적 증상군으로 이미 1980년경부터 정신과 의사 사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명명하게 된 질환이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긴장으로 인한 두통, 시력 장애, 잦은 소변, 위장 장애, 현기증 등의 신체적 증상이 있다. 또한 불면이나 자극 과민으로 인해 사소한 자극에도 흥분을 잘하고 파괴적으로 되는 증상을 보여준다. 보다 심한 경우 공부 뿐 아니라 삶에 대한 전반적 흥미나 의욕 상실, 식욕 부진, 극도의 무력감을 나타내어 결석이 잦아지고 결국 학업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른다. 보다 심할 경우 극심한 정서적 혼란상태에 빠져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주기도 한다. 넓게 원인적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 가출, 청소년 비행, 약물 남용, 자살 문제도 이러한 입시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 못할 때 학생들이 보이는 반동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청소년이나 소아의 경우는 성인

과 달리 우울한 절망감을 정서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내적인 우울감을 행동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겉으로 보아서는 공격적이고 어른에 대해 반항적이며 비행을 저지르는 행동장애 청소년일지라도 내심 자세히 그의 정신 역동을 파악해 보면 행동의 저변에는 외부 환경적 혹은 내적인 불만과 우울이 내재해 있기 쉽다.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경우 신경정신과 입원 환자 가운데 청소년 비율이 약 14%나 (81년~87년)되는 것은 미국 국립·주립 병원에서의 청소년 입원 비율이 5.9%라는 보고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이중 입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었던 청소년의 비율은 85~86년에 42% 였던 것이 87년 78%로 증가한 것은



입시 스트레스의 심각한 정도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하겠다. 시험 불안이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서 느끼는 걱정 또는 두려움이라 할 수 있다. 시험 불안이란 한 마디로 시험실패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실패한 후 일어날 여러 결과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그 심리 저변에는 부정적인 자기 능력에 관한 자체 평가에 비해 자신 및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욕구 기대치가 높을 때 생긴다 하겠다.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에 빠지기 쉬운 학생은 지나치게 꼼꼼하고 세심하며 완벽성을 추구하는 강박적 성향이 높다. 내향적 소심형의 경우도 입시 스트레스를 외부로 적절히 해소하지 못해 스트레스 증후군이 잘 생긴다. 또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공부에 대한 한을 자녀를 통해 풀려는 ‘과잉 기대’ ‘과잉 보상형’ 부모들의 자녀인 경우도 잘 생기며 자만심에 빠져 자신의 능력에 힘겨운 일류 대학만을 고집하는 ‘일류 집착증’이나 장래의 진로 선택에 있어 자신과 부모간의 갈등이 심해 적성에 맞지 않는 대학에 진학한 후 번민 속에 휴학과 재수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입시병에 빠지기 쉽다.

시험 불안을 시간적으로 나누어 볼 때 미리 시험전부터 닥쳐올 결과를 걱정하는 ‘예기 불안’과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루면서 겪게 되는 ‘상황 불안’의 두 종류로도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일반 학생들과의 상담이나 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시험 전날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극에 달하는 경우가 약 40%, 시험치는 중에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약 17%, 시험 날짜 공고 이후 지속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14% 였다. 대개의 시험 불안은 통계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예기 불안인 것이다. 예기 불안이 높을 때에 흔히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다’, ‘남들은 벌써 다 공부했는데 시작도 못했
다’ 등 주로 남과 비교하여 우왕좌왕 하게되며 막상 책상에 앉아
도 초조하여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것이다. ‘이번 시험을 못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등 과거 시험 실
패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사고 인지 과정에 따른 불안이다. 이에
비해 상황 불안은 시험을 치르는 중에 ‘몸이 굳어버릴 것 같고
현기증이 난다’, ‘방금 알았던것 같은데 막상 시험지를 보면 생각
이 통 나지를 않는다’, ‘시험지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이러한 시험장에서의 실패 경험은 추후 시
험에 대한 예기 불안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밟게 된다.

우리나라의 과잉 교육열이 부정적이고 사회적 병폐만을 야기시
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
듯이 시험불안이란 없어져야 할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니다. 불안의
정도와 성질에 따라서는 오히려 발전적인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외부 스트레스나 긴장을 고무줄에 비유하여 볼 것 같으면
불안의 정도가 너무 심해 고무줄이 감당을 못해 끊어지는 수가
있겠고 반대로 긴장이 없이 힘없이 늘어진 경우도 있겠으며 알맞
게 팽팽한 고무줄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중 가장 바람직한 고무줄
의 상태는 말할 나위 없이 적당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지닌 팽팽
한 고무줄인 것이다. 즉 인간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이루고자
할 때 긴장이 뒤따라야 하며 이는 정신 건강확장 지극히 정상적
인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느슨한 고무줄은 마치 아무 목표나
방향 설정없이 나태한 삶을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으며, 끊어진
고무줄은 외부 스트레스에 감당을 못하고 불안이 지나쳐 개체가
정신병적 상태에 이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 불안이란 개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경고 체계이며 또한 개체로 하여금 자

기 자극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기폭제인 것이다. 시험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는 것은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시험 불안의 정도와 시험 성적과의 관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연구에 따르면 시험 불안이 언제나 시험 성적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시험 불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성적 차이가 없는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하겠다. 시험 불안의 정도와 성적간의 관계는 개인이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성적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시험에 대해 항상 걱정하는 학생들은 공부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시험이라는 행위 자체에 너무 집착하는 나머지 쓸데 없는 걱정 속에 시간을 낭비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 악순환을 밟는 것이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스트레스나 긴장·불안이 무조건 부정적인 단어로만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불안에는 자기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마음의 채찍질과 같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우리 모두 ‘신나는 불안’이란 개념을 수험생들에게 인식시켜주자.

체벌은 과연 사랑의 매인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을 지휘봉으로 때리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학교 여교사에게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는 얼마 전 대구의 한 국민학교 여교사 김아무개 씨에 대한 폭행치상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볼 수 없다”면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정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가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지금까지 재판과정을 통해 교육권과 징계의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민학교 5학년인 학생을 길이 50cm, 지름 3cm 가량의 나무 지휘봉을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때리고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트는 피해자의 엉덩이 위 허리 부분을 다시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징계의 방법과 정도에서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5학년 담임이던 교사 김씨는 지난 88년 11월 자연시험문제 9문항을 출제해 틀린 수대로 지휘봉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던 중, 9문제를 모두 틀린 박아무개군(12세)이 3대째를 맞다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허리에 잘못 맞아 척추를 다치고 말았다. 부모들의 고소에 의해 경찰조사를 받은 김교사는 벌금 30만원에 폭행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처벌을 가하다 학생이 갑자기 무릎을 굽히는 바람에 다치게 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에 벗어난 행위가 아니므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봐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 “아이들을 매질해서 좋은 점수 따기를 강요하는 것은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패배감과 열등감을 심어줄 뿐 전전한 인격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김 교사의 행위는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히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참교육이란 매질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땅의 교육은 반인간적 교육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교사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통해 “교직이 교편이라고 불려온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회초리를 사용했고 이는 스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김 교사의 체벌을 ‘사랑의 매’라고 두둔하였다.

이처럼 체벌로 인해 부모와 체벌교사 사이의 시비가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언론에서는 새삼스럽게 체벌에 대한 찬반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방송국 기자가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을 상대로 체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열성까지 보였다.

대체적인 여론은 체벌은 우리의 교육전통에서 하나의 관례로 인정되어 왔으며,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 과밀학급 등 교육현실의 열악함 때문에 합리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가하기 쉬운 체벌은 선도나 교육적 차원에 머무르기가 대단히 어렵고 실제로 많은 교사들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부정적 교육효과를 가져오기 쉽고, 폭력을 모방 학습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염려도 높아지고 있다.

체벌은 과연 ‘사랑의 매’인가?

“선생님들은 대개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저희들을 때리시죠. 하지만 맞는 사람은 그 매가 정말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매인지, 화가 나서 마구 때리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저의 경우는 성적이 나쁘다고 많이 맞았는데 맞았다고 해서 성적이 오른 효과를 보

진 못했어요. 단지 그 시간이 무섭고 그 선생님이 싫어졌을 뿐이에요. 우리들은 시험이 끝나고 그 과목 시간만 돌아오면 “또 ‘타작’시간이 돌아왔구나 하며 공포에 떨었었죠.”

“진정한 사랑의 매라면 선생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때려야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공부 잘한다거나 집이 부자라서 귀염을 받는 애들은 다른 애들 같으면 벌을 받았을만한 나쁜 짓을 해도 벌받는대거나 매를 맞는 일은 없거든요. 체벌에도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까요? 그러니 맞는 사람의 마음에 반성하는 빛이 생겨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진정한 마음에서 ‘사랑의 매’로 여겨지는 매를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재 고3, 고1인 학생들의 말이다.

부모들도 입을 모아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해 흥분하고 분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다.

방송중계차가 서울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운동장에서 체육시간 수업을 받고 있던 중학생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던졌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한 번도 체벌을 당하지 않은 학생 손 들어보세요.” 두세 명의 학생이 손을 들었다. 두 번째 물음이 던져졌다.

“그럼 이번엔 부모님으로부터 한 차례도 맞은 적이 없는 사람.” 이번에는 단 한 명만이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99.9%가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을 당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추상적 사고기능이 보다 발달되어서 삶의 의미, 인생의 목적등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적성에 대해서

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즉 자신이 가야할 길과 독립된 주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유아시기의 의존심이 강하게 남아있는 청소년은 주체성의 인식이 약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될 수도 있는데 이를 주체성 위기(identity crisis)라고 한다.

이렇듯 복잡한 성장과정을 거쳐야 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로선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체로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양육 태도와 통제방법은 중용적이라 한다.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들과 신체적 접촉의 기회가 많고 이런 관계는 애착 형성을 도와 아동학대의 유발을 막아준다. 또한 노인세대와의 교류를 통해서 아동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다는 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 가운데는 올바른



아동의 성장을 위해서는 매를 통한 훈육의 방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법 제76조에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 학생을 징계 또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체벌을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교사의 입회하에 비공개로 체벌하거나 체벌 이외의 다른 징계방법을 쓰도록 하고 있다. 또 최근 국제법으로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 1항에는 ‘국가는 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적절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 폭행, 상해, 학대, 방임, 착취와 같은 모든 인권침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아동의 체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양면이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체벌이 ‘사랑의 매’라고 위장되어 아동학대로 변질될 때이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미국의 소아과 의사 켄페(Kempe)는 아동학대를 ‘부모나 돌보는 사람에게 의해서 어린 아동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질(Gil)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아동이 신체적 심리적 잠재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행위’는 아동 학대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적절한 아동양육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태만, 의료적 태만, 정서적 학대, 정서적 태만, 교육적 태만, 유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학대받은 아동이 보이는 심리적 후유증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아기능 손실이다. 가장 흔한 심리적 후유증이며 발달

지연과 중추신경계의 장애, 정신지체 등의 증상과 더불어 과잉운동 언어발달의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둘째는 급성 불안 반응이다. 신체적 심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유기당할 위협을 느낀다. 심하면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충격상황을 예견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해 하기도 한다.

셋째는 병적 대인관계로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넷째는 충동조절능력의 장애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공격적 파괴적 행동을 보이게 되고 나이든 아동, 청소년들은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는 폭력 부모를 동일시하여 과도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자살기도나 자살위협과 같은 형태의 자학적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섯째는 학교적응의 어려움이다. 집중력 장애, 과잉운동, 인지기능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가 어려워진다. 부모에 대한 분노가 선생님에게 옮겨가서 수업중의 방해 행동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계속 되기도 한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부모 자신이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

둘째는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서 어른이 되어서 부모-자식간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수가 많다.

셋째는 모성의 돌봄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정서적으로 박탈된 경험이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자식이 부모들을 돌봐주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즉 학대부모의 성격적 특징은 미숙하고 충동적이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의존적인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애정의 표현과 언어적 자극이 부족하고 감정

이 우울한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대개는 교사나 부모가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랑의 매’라는 명목으로 아이를 때리거나 벌주지만 매를 드는 순간은 냉정하게 ‘교육’을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분노나 흥분의 감정에 빠져 자아를 잃고 자제력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가하는 체벌이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행위에 그치게 되진 않을까?

자녀에 대한 체벌이 진정한 ‘사랑의 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이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그들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가 태만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중립적인 마음으로 잘 타이르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후에도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 반복될 경우에는 충분히 경고를 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위험하지 않은 신체부분에 적당한 벌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체벌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아동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으나 그 시기나 강도,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구타를 포함한 아동 학대는 아동을 양육 보호해야 하는 부모의 근본적 고유업무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또한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아동뿐 아니라 부인 구타현상도 함께 일어날 수가 있다. 이들에 대한 치료와 예방은 학대받은 아동과 부모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우선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체적인 상처와 손상에 대한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모로부터 격리시키고 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학대로부터 예방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다른 성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공포를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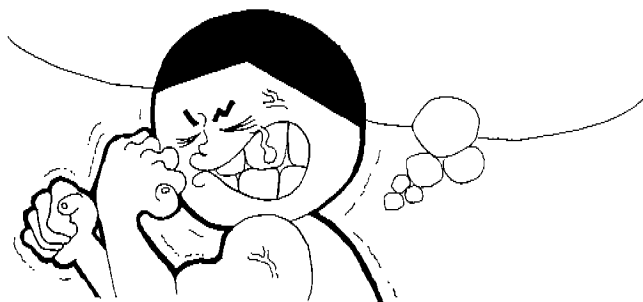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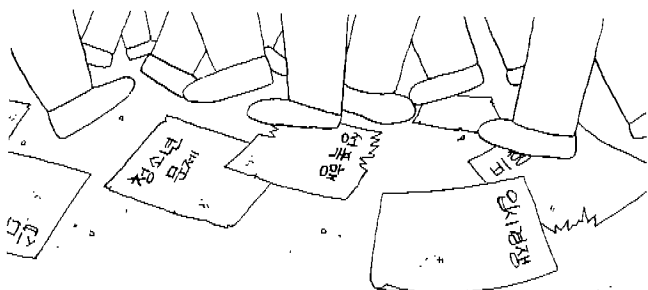
화시키고 정서적 행동상의 문제를 다루어서 심각한 장기적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부모에 대해서는 가해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들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동과 부모가 다 희생자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아동은 물론 부모의 학대의 희생자이지만 부모 자신이 불행한 과거와 사회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외롭고 좌절함으로써 가해행위를 하게 된 희생자이므로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공감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에 대한 일반적 혐오감과 멸시감이 생기기 쉬운 경향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부모를 희생자로 생각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은 부모 자신의 만성적인 자신감 결여와 정신병리를 치료하고 사회적 고립을 이겨나가고 자녀에 대한 긍정적 양육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아동에 대한 과잉기대나 잘못된 생각 대신 아동이 즐겁고 만족감을 얻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도 서구사회처럼 핵가족화가 보편화 되어가고 있고 남녀평등사상,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퍼져감에 따라서 부모로서의 책임감이나 자녀관에 문제성향이 높아져가고 있으므로 올바른 부모상, 올바른 양육관, 아동발달, 아동심리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아동학대와 같은 비극이 출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체벌을 ‘사랑의 매’로 합리화하는 건 곤란하며, 체벌의 허용기준과 지나친 체벌을 막을 수 있는 법적·교육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학생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우리 교육법에 체벌을 제한하는 조항을 입법해 무절제한 체벌의 남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발육이 왕성하여 신체는 어른과 다를 바 없이 성장하지만 사회적 위치로는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적응상의 어려움이 많고 인생에 있어서 성적 충동, 공격적 충동이 절정에 달하는 격변의 시기이다. 이러한 왕성한 내부적 충동을 억제시키느냐 발산시키느냐의 갈등 속

에서 자아 의식을 정립하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더욱이 청소년기의 특유한 생물학적, 사회심리학적 욕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욕구 좌절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부적응적 행동반응을 일으키기 쉽다. 이러한 욕구좌절이 주위에서 적절히 해소되지 못할 때 극단적인 공격성이 터져나와 청소년 비행과 범죄로 나타난다 하겠다. 청소년육성위원회나 대검찰청 통계 자료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는 날로 조직화, 흉포화, 연소화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폭력 범죄, 성범죄, 가출, 약물 남용, 학교내 폭력, 가정내 폭력은 청소년들의 공격성의 극단적인 외부 발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격성의 외부 발산 이외에 내적으로 발산하는 경우 심한 자책감내지 우울에 빠져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자살은 공격성이 자신의 내부로 향해 일어나는 가장 극단적인 예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공격적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신체적, 정신적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상적 공격적 심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로 공격성의 다양한 정신의학적 분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청소년의 공격성이 증가되고 있는 원인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본능을 크게 성적인 본능과, 공격적 본능으로 보았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파괴적인 공격적 본능이 내재하여 있지만 다만 이를 잘 통제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아직 가치 체계나 도덕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데

비해 내적으로는 강한 성적 본능이나, 공격적 본능이 싹트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발달 심리 입장에서 공격성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기의 정신적 변화를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춘기에 접어들면 신체 내부에 여러 변화가 일어난다. 신체적 변화로는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의 왕성한 분비로 인해 신체는 어른과 같이 급성장하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로 보아야 할 지 어른으로 보아야 할 지 혼란을 갖게 한다. 청소년 자신도 자기의 내적 현 위치와 사회적 요구 위치 차이에 따른 혼동을 겪게되어 때로는 양복을 입고 술집, 다방에 출입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힘을 과시하려 한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긍정적 자아형성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반대로 주변 친구에 비해 성장이 늦는 아이는 신체적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 자주 거울을 보고 몸치장을 하고 외모에 신경을 쓰는 시기가 자연히 오게 된다.

또한 성 호르몬 분비에 따라 신체 여러 부위에 2차적 성적 변화가 생긴다. 특히 여자의 초경은 강한 정신적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본능적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성적 욕구는 자위 행위로 분출되거나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되기도하며 로맨틱한 내용의 연애 공상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적, 공격적 충동 처리 과정에 있어 청소년 자신도 상당한 놀라움, 두려움, 죄책감을 동시에 겪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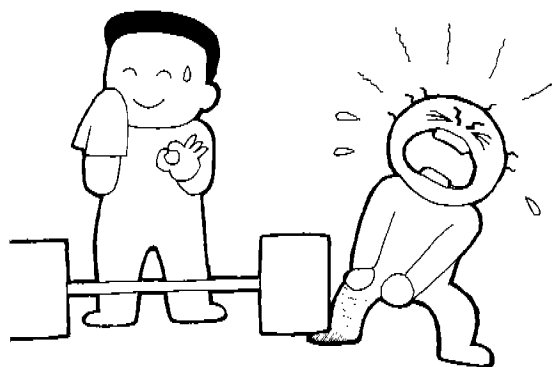
둘째,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사고, 인지 과정의 발달이 빠르게 된다.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상적 상황에서 구체적 조작 사고가 가능해지고 추상적 문제 해결의 논리적 추리 능력이 생기게 되는 논리적 사고기에 접어든다.

이러한 사고·인지 발달에 따라 자기나름 대로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긴다. 과거 부모에 순종하고 불평 한 마디 없던 아이가 반항적으로 되고 부모를 비난하며 과거 부모와 상의하던 문제를 전혀 집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친구나 동료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생긴다. 자식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 ‘이제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가 보다’라고 흔히들 생각하게 된다. 과거 부모에 대해 가졌던 절대적 믿음이 깨어지고 부모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자기나름 대로의 논리에 따라 ‘기성 세대가 어땠고’ ‘우리 사회가 어땠고’라는 식의 비판을 한다. 극단적인 경우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모든 주변의 가족이나 학교, 사회 현상을 보려는 독선이 지나쳐 기성 세대의 규범이나 가치관, 부모나 선생님의 조언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사상적, 종교적 궤변 논리에 빠져버리는 사고의 극단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흔히들 청소년들이 주장하는 ‘세대 차이가 나서 어머니와는 얘기가 안통한다’라는 얘기는 당연한 주장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고의 극단성인 경우가 많다.

셋째, 부모로부터 심리적 해방과 독립을 추구하게 된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은 다 컸다고 생각하며 성인 취급받기를 원하는 반면, 부모는 그대로 아이로 취급하려 한다. ‘이유없는 반항’이 시작되고 부모와 자녀간에 사소한 일로 다투며 신경전을 벌인다. 비교적 순종적이던 아이가 도전적이며 부정적이고 거부적 행동을 함으로써 부모를 놀라게 한다. 이런 반항적 행동은 이제까지 소아기의 의존적이었던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독립하려는 노력의 소산이다. 특히 과거 성장 시절 부모-아이 간에 갈등이 많았던 청소년의 경우 아동기 때의 부모에 대한 감정이 되살아나서 적대적이 되거나 부모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보기 위해 가출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청소년기에 들면 청소년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공부도 잘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친구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며 미래 내가 무슨 직업을 택하고 어떤 목표로 살아야 할 지를 나름대로 정립해야 한다. 청소년기란 이러한 가치관, 도덕관을 확립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기인 것이다. ‘자아 주체성 확립’이 완성되면 청소년기의 방황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자아 주체성 확립이 올바르게 되지 못할 때 잘못된 영웅 심리나 퇴폐적 성인 모방 행동으로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일면에는 친구 사이에서 용기가 있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친구와의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집단



적 폭력, 집단 약물 남용을 하게 된다.

공격성의 본질, 유발 원인에 대하여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수 많은 이론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격성의 요인을 내부적 본능으로 보는 견해로 프로이트 등의 본능 이론이다.

둘째는 공격성의 원인은 외부적 상황에서부터 온다는 이론으로 욕구좌절-공격 모델이 대표적이다. 즉 목표 달성이 방해되거나 제한을 받아 욕구가 좌절될 경우 반동적으로 분노, 원망의 감정이 폭발하여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는 공격성을 성장 과정에서 반복된 학습의 결과로 보는 이론이다. 부모 불화가 심하여 때를 많이 맞고 자란 아이가 성장하여 똑같은 식으로 아이를 구타한다든지 TV, 비디오 폭력물을 많이 보는 아이가 공격적 행동이 높다는 사실은 이 이론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공격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비사회성 공격형은 다른 사람과의 유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을 느끼지 못하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유형이다. 유아기 때 특정 사람과 애정 관계가 없이 불우하게 성장한 경우로 외톨이형 공격 행동을 보인다.

사회화 결핍 공격형은 비사회성 공격형에 비해 남을 해치거나 하는 행동이 적은 반면 자기 통제력이 결여되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유형이다. 대개 부모의 과잉 보호, 일관성 없는 양육 훈련에 기인한다.

사회화성 공격형은 다른 사람에 애착을 보이거나 그것이 한정되어 있고 그가 충성하는 집단 외에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은 생

각지 않고 행동하는 유형이다. 범죄 집단의 하수인이 좋은 예라 하겠으며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비행이 잦은 계층에서 성장한 사람에 많다.

2차적 공격성은 공격성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저변에 깔린 감정적 문제가 주원인인 유형이다. 즉 비행이나 행동 장애의 증세가 학교를 전학해서 적응하기 힘들다거나, 불안, 우울 등의 내적 갈등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격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주변 환경의 변화나 아이가 겪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해소해 주면 공격적 행동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최근 수 십년간 우리 사회가 겪은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는 아마 조선 시대 500년간 겪은 변화보다 더 엄청난 것일지도 모른다. 외래 문화 홍수 속에서 산업화, 핵가족화, 물질주의 팽배, 극도의 출세 지향적인 개인주의의 만연에 따른 오늘날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풍토는 우리 성인들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직 가치 체계나 도덕관의 확립이 확고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무분별한 성인들의 행동을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다. 따라서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에 의한 폭력·비행 문제는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 심리학적 변수에서 넓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 중 대변되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청소년 문제의 일차적 책임이 가정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 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가정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과 어른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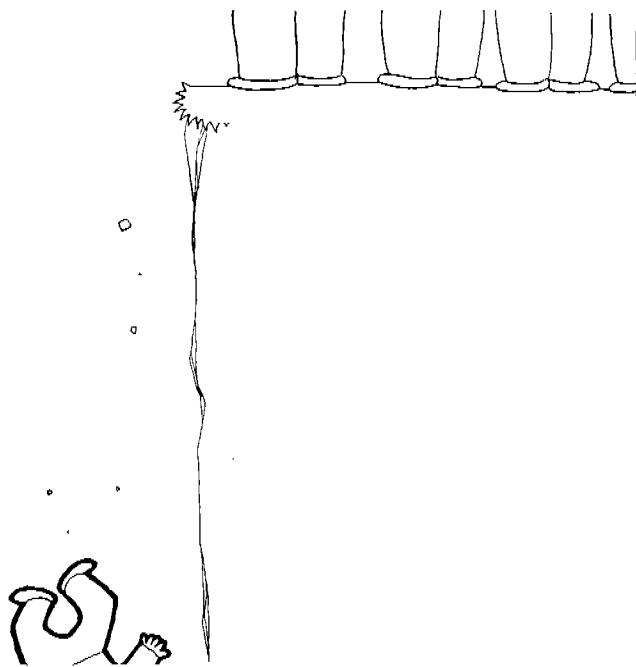
공경심이 요구되며 개인의 욕구는 자제해야한다. 이것이 핵가족화 되면서 권위에 대한 복종심이나 자기 절제에 대한 가정내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또한 현대 사회화 되면서 결손가정이 늘어났다. 결손 가정이란 부모의 이혼, 사별 혹은 넓게는 해외 근무로 장기간 헤어지게 되거나 맞벌이로 인하여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가정을 의미한다. 이런 가정의 경우 역시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 복종심을 배울 기회가 미약하여 자신의 욕구나 공격심을 절제 못하고 분출하게 된다.

무절제한 외국 문물의 수입, 물질주의, 개인주의, 상업주의의 팽배는 고유의 전통적 가치관을 지켜온 우리사회로서는 도덕관, 가치관에 큰 혼돈을 야기시켰다. 현실 지향적, 쾌락주의적 경향이 증가된 성인 욕구 중심적인 사회 체제는 청소년들의 욕구 불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성인 모방 행동으로 성범죄, 집단 폭력,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알파한 상업주의는 도덕적 가치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비디오, 영화, 오락 등 말초적 쾌락으로 이끌어 들이고 있다. 이렇듯 TV, 비디오 폭력물이나 무절제하게 범람하는 외래 퇴폐 문화가 오늘날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친 역효과는 매우 크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청소년 공격성의 내면 심리 및 공격성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공격성이 증가된 배경에 대해 알아 보았다. 끝으로 청소년 공격성을 우리 기성 세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공격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 우선 행위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공격적 행동 저변에 깔린 행위 동기를 파악해야 한다. 조용하고 순

중적이던 아이가 갑자기 부모에 대드는 경우 아이가 무슨 고민이 있는가, 어떤 갈등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인이 털어놓지 않는 경우 친구, 선배, 학교 선생님을 통해 최근 어떻게 지냈는지 혹은 무슨 일이 없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원인적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기성 세대 자신이 청소년기로 돌아가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는 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정상적으로 공격성이 증가되는데 이를 보다 발전적이고 건강한 분야로 전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집단 활동을 하거나 어떤 일에 몰두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공격성이란 반드시 부정적인 개념은 아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고 추진하는 힘 역시 공격성의 바람직한 처리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공격성의 무조건적 억제 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격성을 분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자살 누구의 책임인가



자살은 동서고금, 연령, 그리고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자기파괴적 사고나 죽음에 대한 사고는 누구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20세기에 있어서 의학과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신체적인 건강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그대신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등의 증가로 인해서 자

살의 빈도는 해마다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 연구보고들에서 자살이 과거에는 고연령층에서 많았으나 최근에는 청소년층이나 중년층에서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홀링거에 의하면 미국에서 10세에서 24세 사이 청소년층의 자살율이 1961년도에 비해 1976년에는 2배이상이나 된다고 보고하고 있고 슈와브, 홀링거 등은 청소년층에서 자살이 연령층에서의 사망원인 중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한다. 즉 청소년층의 자살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대 의대 신경정신과학교실에서 1986년에 발표한 한국청소년들의 자살양상에 관한 연구보고를 보면 자살기도 경험의 경우 일반학생은 5.1%인데 비해 비행청소년에서는 15.1%나 되었으며 자살충동의 경우는 일반학생은 21.5% 였으나 비행청소년에서는 70.8%나 되었다. 그 이후 다른 연구보고에 의하면 이보다 훨씬 높은 자살율을 보이고 있다. 이제 청소년층의 자살도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정서적 격동기이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 이상 남의 집 얘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더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청소년기의 어려움과 자살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다.

청소년기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변화되어가는 중간단계로서 사춘기라는 신체적인 변화에 의해서 시작된다. 신체적인 변화의

에도 청소년들은 복잡한 심리학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점차 독립적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어른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기를 잘 넘어가게 될 경우 그는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인격과 직업관의 확립과 더불어 가족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기초를 잘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사춘기로 인한 신체적 변화 때문에 청소년들은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심리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를 정서적 혼란기라고 본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기간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정도가 심하고 부모나 주위사람들의 적절한 도움이 쉽게 제공되지 않을 때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다. 혼자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우울증, 정신신체장애, 정신병, 비행행동 등의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청소년층의 자살도 그 한 가지의 결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자살은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무의식적 감정들이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 측면에서 볼 때 프로이드는 자살이란 사실은 마음속 깊이 잠재하고 있는 자기 아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설명한다. 현실적으로는 자기신체에 대한 공격이지만 무의식적 측면에서 볼 때는 타살이라고 해석한다.

반면에 의식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살은 다음과 같은 많은 유발요인과 심리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가장 흔히 발견되는 유발요인들로서는 “애정”, “사랑” 그리고 “힘”의 상실감과 관계

된다. 사랑받고자 했던 대상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무시당했을 때 그는 버림받은 느낌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복수심 때문에, 또는 절망감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또는 죽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결합하고 싶은 마음에서, 또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소망 등에 의해서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생활사건들이 청소년들을 자살로 이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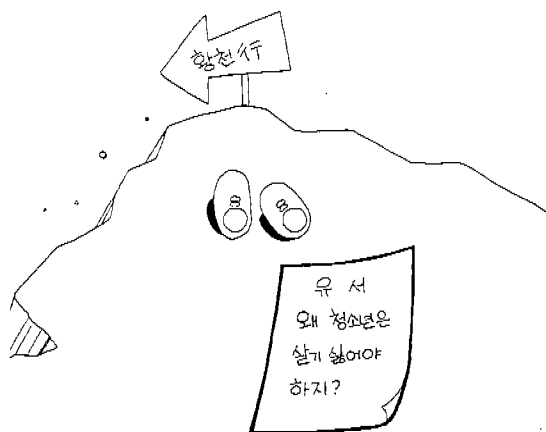
- 학업성적이 자주 떨어지는 경우
-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을 때
- 친한 친구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 학생신분으로 성관계를 맺고 임신이 된 경우
- 사귀던 이성친구에게 버림받았을 때
-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난후 느끼는 후회심과 심한 죄책감 그리고 나중에 닥치게 될 일들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많을 때

○ 심한 신체적 질환 또는 정신장애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을 때
가정환경이 좋은 경우에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가정에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가정이란 그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취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식구들끼리 애정을 주고받고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내일을 위한 재충전을 하는 장소로서 중요한 생활터전이 된다. 그러나 가정의 분위기가 원만치 못하면 이런 점들을 처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정문제까지 더 겹치게 되어 청소년들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좌절하게 되고 자살을 기도하게 될 때가 많다. 자살청소년들의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

- 부모들사이에 심각한 결혼불화가 있는 경우
- 한쪽 부모 또는 양쪽 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
- 부모가 서로 이혼을 했거나 사별한 경우
- 부모 중 한 사람이 양부모인 경우
-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 경우
- 부모와 자녀간에 올바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론적으로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자기의 인격을 되돌아보고 부부사이에 조화를 이루고 따듯



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자살이 제3자가 보기에는 흔히 충동적으로 일순간에 결심한 것 같이 보이지만 대개는 자살을 시도하기전 오랜기간동안 생각하고 난 후 결심을 하게된다. 제리자콥스는 일반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게 되기까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한다.

첫째, 어린시절부터 청소년기때까지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형성된다. 이 문제가 청소년기에도 지속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의식속에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둘째, 청소년기동안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확산된다.

셋째, 과거의 문제들과 현실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그 결과 심한 좌절상태에 빠지게 된다.

넷째, 자살을 시도하기 수 주 또는 수 일 이내에 마지막 남아있던 의미있는 인간관계가 끊어지므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애정을 주고받던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그후 어느날 청소년은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이렇게 자살은 몇 단계를 거친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나타날 수 있는 자살과 관련된 징후들을 잘 알고 있으면 사전에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살에 관한 연구보고들을 보면 모든 자살자의 80%는 사전에 자살에 대한 경고를 한다고 하며, 50%는 직접 말로서 자살의지를 밝힌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안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점들이 관찰되면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

- 학업성적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 식사를 거부하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나 간식도 거부하는 경우
-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졸지 않아야 될 시간과 장소에서 졸고 있다든지 또는 너무 많이 자려고 하는 경우
-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만나는 것도 기피하고 자기 방에만 처박혀 있는 경우
- 부모와 마주보지 않으려하고 또 평소 친하게 대하던 친척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피하는 경우
- 가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며 죽음에 관한 내용을 말하거나 일기장에 쓰는 경우
- 오랫동안 불안정하고 침울해있던 아이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평화스럽게 보이며 자기주변을 정리하는 경우

이런 점들이 특히, 그전에 자살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또는 과거 자살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는 가족을 가진 청소년에게서 보일 때는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때 부모의 힘만으로 어려울 때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때 염두에 둘 것은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 어떤 경우라도 수용해주고 처벌이나 비난보다는 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겠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막상 대화가 이루어지면 자녀들의 의사는 목살하고 부모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에게 말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혼자서 고민하다가 해결책이 없으면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이 미워질 때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한 우울감정 속에서 스스로 죽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또는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다. 이때 주위 가까운 사람들의 위로, 격려, 충고 그리고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괴로운 심정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동시에 용기와 지혜를 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뚝이처럼 일어서게 된다. 이런 마음의 기 능이란 스스로 타고난다고 보다는 노력에 의한 결과로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것의 핵심은 어릴 적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어린시절 동안 부모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대 속에서 올바른 돌봄과 지지를 받고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부모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의 경험들의 총체는 어린이의 마음속 깊은 속에 저장되어 마음의 한 부분이 되고 그 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를 인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스스로 자기를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고 조그마한 잘못에도 부모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성장한 사람들은 나중의 인생 동안 어려움이나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경우 자기 스스로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용기와 지혜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절망감을 일으켜 파괴적인 행동이나 자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맞게될 때 자기 스스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와 지혜를 제공하는 힘이 부족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다.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생할 경우 아무런 능력도 없으며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관계 및 지혜와 용기를 습득하여야 한다. 이것은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를 형성하는 일은 부모의 노력이 절대적이다. 부모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기초가 올바르게 형성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기초가 옳게 형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취약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사랑의 갈구가 중요한 정서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정서적 욕구이다. 무기력한 어린이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계속 삶을 영위케 하는 것은 바로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관심인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욕구는 나중에 친구관계, 이성적 사랑,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핵심을 형성하게 된다. 어머니와 어린이 사이의 상호관계란 강력하면서도 복잡미묘한 것이다. 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 장차 그 사람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적응상태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이 사랑에 대한 갈구는 그의 부모에 대한 어린이의 욕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이것은 성인으로까지 지속되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 타인에 대한 의존성으로 나타날 경우 타인들로부터 찬사, 인정, 그리고 이해를 바라게 된다.
- 어떤 경우에는 우월감이나 명예 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의 형태로도 표현이 된다.
- 성적 사랑과 성적 집착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이것이 동성에게 향해질 경우에는 동성애적 욕구를 갖게 된다.
- 어떤 경우에는 극심한 자기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추구될 경우 과식과 알콜중독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욕구가 지나치게 강렬할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되고 그 결과 어른으로의 발달이 방해받게 된다. 이런 욕구가 부분적으로 극복이 되기는 하지만, 인생의 압력에 의해서 외지의 대상 그리고 모든 만족에 대한 동경이 다시 강렬해지게 된다. 이것이 좌절감, 자존심 손상 그리고 그로 인한 적개심의 가장 중요한 근원 중 하나가 되며 동시에 그에 대한 방어로서 또 다시 적개심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된 적개심은 그 사람의 인격의 형태에 따라 정신병, 신경증, 정신신체장애, 인격장애, 타인에 대한 폭력,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자신에 대한 파괴적인 행동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살이란 심한 좌절,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 그리고 그로 인한 적개심의 발생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자살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것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심각한 정신장애로 인한 경우에서부터, 잘 살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순간적으로 자살하게 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치료원칙도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요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가족 치료를 함께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약물치료도 정신병리의 심각도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그런 차이에 따른 치료법을 다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자살환자의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신역동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살펴 보기로 한다.

자살기도자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상관계, 적개심, 그리고 두려움을 다루는 문제이다.

자살기도자의 심정을 이해해 주고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위로 해주며 동시에 현실에서 좌절감을 일으키게 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지혜를 짜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부족한 사람들이며, 설사 있다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살기도자들의 평소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대상으로 부각되기가 어렵다. 자살기도자들에게 도움적인 대상으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인격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출생후부터 적어도 생후 6~7년 사이) 동안 잘못했던 경우나, 좌절을 했을 때 부모의 사랑과 관용 그리고 배려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비난을 받았던 경우가 많다.

이들은 현실에서 그들에게 좌절을 준 대상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주지 못한 대상들에 대해서 심한 적개심을 갖게 된다. 자살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적개심이 자

기자신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개심이 외부로 향해지게 되면 자살충동은 줄어든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실제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표현시킴으로써 해소시키자는 것이다. 그런 감정을 충분히 해소시킨후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게 되니 그동안 쌓였던 나쁜 감정이 처리되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마음을 바꾸게 됨으로써 더이상 불필요한 나쁜 감정을 만들지도 않게 되는 것이다. 자살에 집착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평소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자살을 시도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장래 인생을 살아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며, 장차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두려움은 표현시키고 동시에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러 가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겠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도 혼자서 고민하다가 자포자기하고 자살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부모나 학교 선생님 또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야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볼 때 청소년들의 자살은 어느 한 차원에서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부모, 사회, 정책담당자, 그리고 청소년자신 등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소외감에 상처입은 어린 가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만 하는 몇 가지 욕구가 있다. 그런 욕구를 기본 욕구라고 하는데, 만일 사람이 이것을 만족치 못하면 생리적으로는 생명을 잃거나 심리적으로는 크게 좌절하여 이상적(異常的)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식욕, 호흡욕, 수면욕, 배설욕, 등은 생리적 기본 욕구이며, 인정욕, 자존욕,

안정욕, 소속욕 등은 심리적 기본 욕구에 해당된다. 기본 욕구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욕구이므로 소홀히 다룰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소외감이라 하는 것은 심리적 기본 욕구 중의 하나인 소속욕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을 뜻하며 소외감의 반대말은 소속감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소속욕이 좌절된 사람이며 결국 심리적으로 크게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소속의 욕구가 좌절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정에서의 소외감을 살펴보자. 옛날의 대가족 제도 속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소속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었다. 그것은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고 가족 구성원 각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으며, 그 역할들이 조화되어 전 가족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전부가 농장의 한 장소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해냄으로써 농사의 공동 작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족 공동체 의식을 느꼈으며 작업과정에서 많은 대화가 가능했으므로 의사 소통이 순조로웠다. 가내 수공업을 하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협동적 작업을 했으며 공동 화제를 놓고 담소할 수 있었으므로 어느 경우에도 가족간의 소속욕이 만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날의 가정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일터가 각각 다른 곳에 있으므로 가족이 함께 모여 있

는 시간이 거의 없다. 밤늦게 돌아오는 가족이 많을수록 대화의 시간은 더 없게 마련이다. 아버지는 늦게 귀가하시고 자녀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아니면 독서실로 갔다가 늦게 집에 돌아온다. 집에는 어머니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어머니 마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 오늘날의 핵가족은 대체로 이와 같다. 그러므로 가족간의 대화가 부족하고 공동 작업, 공동 관심사, 공동 체류 시간이 거의 없다. 이런 현상의 가정에서는 가족간의 역할이 줄고 가족외의 역할만이 늘어날 뿐이다. 즉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할 일이 거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를 놓고 가족끼리 역할을 분담할 일이 없으며 가족 공동의 대화가 적어지게 된다. 모처럼 집안 살림 걱정을 하는 부모의 대화에 자녀가 참여 하려하면 “넌 가서 공부나 해!”하고 몰아낸다. 이런 가정의 자녀는 가정에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없고 부모로부터도 소외당한 외토리라는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런 느낌은 점점 커져서 가족에 대한 배신감으로까지 번져 나갈 수 있다. 고독감과 배신감은 증오감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가솔 청소년은 소속감을 주지 못하는 가정의 산물이다.

다음은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또래 집단간의 소외감에 대해서 살펴 보자. 오늘 날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력 경쟁의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공부에 뒤지면 진학할 수 없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어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피나는 개인대 개인의 경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나 아닌 남을 밀어 치우거나 이겨내야만 살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남을 이겨야 된다는 말은 곧 남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뜻이며, 남과 싸워서 남을 낙오시키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논리가 된다. 이런 집단 속

에는 집단 성원간의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없으며 공동 작업 완성을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없다. 따라서 집단은 물리적 집합일 뿐 집단 성원간의 심리 사회적 유대 관계는 형성되지 못한다. 이런 집단 속에서 소속감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 학급내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다정하고 친절해야 할 학생들이 그러기는 커녕 칼로 동료를 찌르기까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실로 소속감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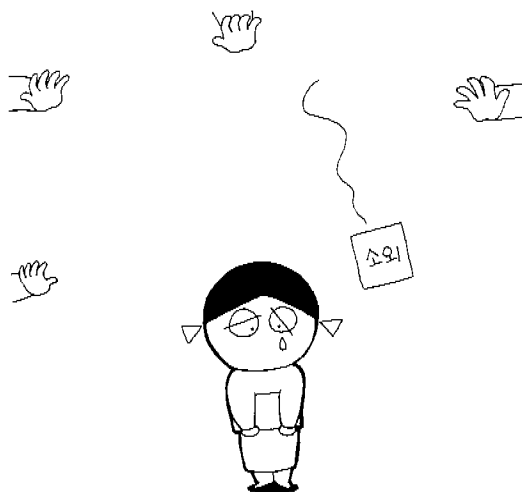
어린이들의 또래집단에서나 청소년들의 동료간에 소속감이 만족되지 못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한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자.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동네 골목을 지나가게 되었다. 골목길 한가운데 대여섯살씩 된 어린이 몇 명이 둥글게 모여 서있었다. 갑자기 그들이 손뼉을 치며 웃음섞인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가까이 가보았더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둥글게 모여 서있는 어린이들의 맨가운데 한 어린이가 서있었다. 그 어린이는 한 눈에 동네 연탄집 아이임을 알 수 있었다. 옷도 제대로 빨아입지 못했거니와 손발과 얼굴에 마저 연탄검정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검정 묻은 어린이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어린이들은 깨끗하고 살이 포동포동 쩌 귀여운 흰 얼굴의 아이들이었다. 흰 얼굴의 어린이들과 검은 얼굴의 어린이의 가정적 배경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놀랍고 엄청난 장면이 벌어져 있었다. 가운데 서 있는 검은 어린이는 그 추운 겨울 아침에 아랫도리 옷을 무릎까지 벗어 내려놓고 강충강충 제자리에서 뛰고 있었으며 사타구니에 고추가 달랑달랑 흔들리고 있었다. 흰 얼굴의 어린이들은 검은 어린이의 하는 짓을 보고 둘러서서 환호하고 있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 졌을까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검

은 어린이는 흰 어린이들 틈에 끼지 못했을 것이며 흰 어린이들은 검은 어린이를 항상 놀려주었을 것이다. 상대해 주지 않았을 것이고 괴롭혔을 것이다. 검은 어린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흰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수 없었을 것이다. 외로웠고 심심했을 것이며 고독하고 슬펐을 것이다. 그런 나머지 검은 어린이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흰 어린이들의 주의를 끌어서 그들의 집단 속에 소속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 추운 겨울 아침에 고추를 내보이기까지 해서라도 흰 어린이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나타내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소속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한 아가씨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필자를 찾아 와서 여동생의



자랑을 늘어 놓았다. 상담자의 경험과 이론을 통해 볼 때 이 아가씨는 동생 자랑을 하기 위하여 상담을 요청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절마 동생 자랑을 하려고 나를 찾아온 것은 아니겠지?”하고 상담자가 말하자 아가씨는 자신의 하소연을 털어 놓기 시작했다. “전 사실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천덕꾸러기였어요. 개밥에 도토리였지요”라고 시작하여 아가씨가 상담자에게 털어놓은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병약해서 자주 병원 신세를 졌으며 머리에 는 험집까지 생겨서 오래도록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버지는 말단 경찰관이므로 늘 가정의 경제 사정이 어려웠는데 자신이 병까지 자주 앓게 되어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려웠다. 말쑥도 자주 부려서 형제들 중 꾸지람은 늘 혼자 독차지했으며 공부도 못했으니 부모로부터 미운받은 것은 당연했다. 동생은 총명하여 학교 공부도 잘 하고 얼굴도 예뻐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방 하나를 동생과 둘이 썼는데 동생이 미워서 자주 싸웠다. 대학 입학시험에 낙방하고 집에 있을 수 없어 집을 나왔다.

이런 것이 대체로의 내용이었다. 이 아가씨의 가출 동기는 무엇일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편애가 가출 동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편애가 결국 이 아가씨로 하여금 가정에서의 소속감을 박탈했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못한 채 소속의 욕구가 좌절된 것이다. 가출은 가정 내에서의 소속의 욕구가 만족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만 소외감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른들도 그들의 집단 사회 생활이 있으며 직장 집단, 사교 집단 등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소속되어야 한다는 말은 다만 그런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물리적 위치를 차지

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한집단 내의 성원으로서 숫자만 채워주는 존재여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서로 느끼고 감정을 통하며 생각을 함께 하는 그런 심리적 관계가 맺어지는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을 망라하여 그들이 속하고 있는 어느 집단에서도 소속감을 못 느끼면 그들의 집단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게 되고 집단 내의 타인들을 비난하며 드디어는 반집단적, 반사회적 경향으로까지 흐르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정에서의 소속감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학교 집단에서의 소속감을, 모든 사회단체와 국가 단체의 지도자들은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집단에서의 소속감을 충분히 느끼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그 집단내에서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집단의 공동 목표에 참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가정에서의 경우, 가정 내의 공동 관심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며 그렇게 되면 공동 화제가 생기게 된다. 가족끼리 함께 느끼고 생각하며 의견을 주고 받는 상식적 내용의 공동 관심사 말이다. 그것은 상식적 내용이 좋다. 전문적 분야의 공동 관심사는 만들기 어렵다. 아무리 가족 간이라 해도 전문적 분야는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설 내용에 관한 얘기, TV 드라마에 대한 얘기, 가정 살림살이 얘기, 여름 휴가 계획 등등의 공동 화제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개개인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역할이 없으면 소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가정은 어느 가족 구성원에게 있어서나 매력있는 대상이 된다. 매력 있는 가정에는 누구나 일찍 돌아가고 싶어진다. 직장에서 일이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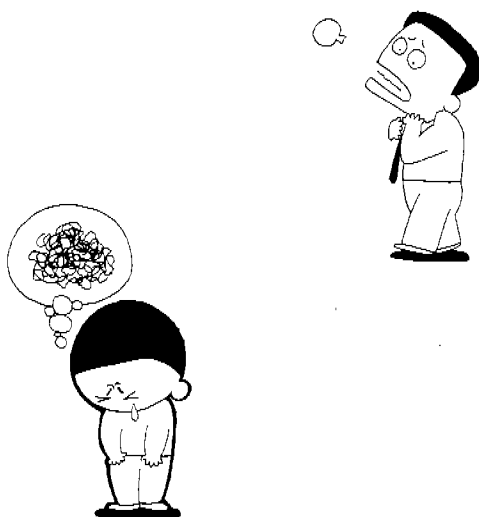
났는데도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가 끝났는데도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는 사람은 그 가정에 대하여 매력을 못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즉 가정에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정에서의 소속감을 느끼게하는 지름길은 가정을 매력있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경쟁적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 경쟁은 집단 구성원 간에 긴장과 원한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가능한 한 공동학습 과제를 택하여 협동 학습을 조장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공동학습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학습의 구성원들은 제각기 자기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경쟁적 학습 방법을 택하면 학습의 몇몇 학생만 참가할 수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행할 역할이 아무 것도 없게 된다. 이래가지고는 소속감이 일어나지 않는다.

훌륭한 교사는 학습 학생 누구에게도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과제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수학 성적은 좋지 않지만 음향 기기를 잘 다루는 학생에게는 학습 연에 행사때 음향 효과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 공부는 잘못해도 운동을 잘 하는 학생에게는 운동회때 팀장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으며, 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화단 책임자로, 청결에 주의하는 학생은 청소반장의 역할을 각각 맡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습의 반장과 학생회 회장의 역할도 정해진 한 학생이 계속 할 것이 아니다. 여러 학생이 돌아가면서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학습 전체 학생이 한 번씩 해보는 것이 더욱 좋다. 지도자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고 또 지도자에게 이끌려 보기도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 방식을 익히게 되며 그런 습관 속에서 소속감은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소속의 욕구가 좌절되는 사람의 행동은 정상적일 수 없다. 그 행동은 급기야 반사회적으로까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어떤 집단에서도 소속감을 충분히 느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집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무심코 던진 부모말에 멍드는 아이 가슴



몇 년전 한 어머니가 여고생 딸을 데리고 진찰실을 방문했다. 딸이 몇 달전부터 학교에도 가기 싫어하고, 식사도 거부하고 자기방안에만 쳐박혀 있다며 정신질환이 아닌가 의심되어 데리고 왔다는 것이다. 무엇때문에 그러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납득할만

한 대답을 안해주고 학교도 안가겠다고 해서 어떤 때는 달래도 보고, 어떤 때는 야단도 쳐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학생은 몸이 몹시 여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도 없이 멍하게 바깥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에 오기도 싫은데 괜히 어머니에게 끌려 왔다는 눈치였다. 수십분간 대화를 하자고 설득했지만 별다른 고민은 없다고 말할 뿐 전혀 자기의 마음을 털어 놓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와 상의 끝에 할 수 없이 입원을 시키게 되었다. 입원후에도 전혀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으나, 어떤 문제라도 얘기하면 도와주겠다는 필자의 말에 “선생님이 도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헛수고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마디 했다. 자기에게 어떤 괴로운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한 마디 말이었다. 그러나 쉽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다.

그후 몇 일에 걸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돌아가면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본 필자의 정성에 감동을 했는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털어 놓았다.

자기는 3남3녀 중 막내인데, 사실은 그집 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기가 부모나 다른 형제와 전혀 닮지 않았고, 어릴적부터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로부터 자기는 누가 대문앞에 버리고 간 것을 데려다 키웠다는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거짓말인줄 알았는데, 계속 돌다보니 정말처럼 들렸고 또 자기가 식구들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데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몇 개월 전, 가족들끼리 모여 앨범의 사진을 구경하던 중 형제들은 모두 둘 사진이 있는데 자기만 둘사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어머니는 얼버무리면서 정확한 대답을 안해주었다

고 했다. 학생은 그 순간 정말 자기가 주어진 애로구나 하고 믿게 되면서부터 만사가 싫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학교가는 것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다. 이 학생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삶에 대한 의욕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누가 짐작이나 하겠는가? 그 말을 전해들은 부모님 역시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고, 오히려 그런 문제로 고민해왔던 학생에 대해서 분노심까지 표현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럴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은 재미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이 마음은 그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없다. 더구나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서서히 의심이 싹트게 된다. 어른인 경우에도 열 사람이 뭉치면 한 사람쯤 쉽게 바보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더 쉬운 것 아니겠는가?

필자의 이런 여러가지 말들을 듣고 난 부모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딸을 만나 사과를 하고 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딸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대답과 설명을 다 해주었다. 딸의 돌사진이 없는 것도 사실은 그애가 막내딸이고, 또 그 당시 아버지사업이 잘 되지 않아 무시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라고 솔직히 말하고 사과를 하게 되었다. 그후 그 학생은 다시 활기를 되찾아 퇴원하였고 가끔 잘 지낸다는 연락을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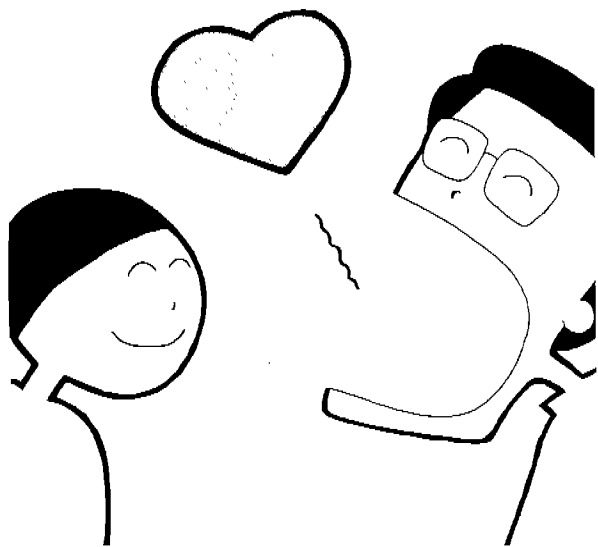
무심코 던진 부모말에 명든 다른 한 남학생의 경우를 소개해 보겠다. 몇 년전 한 남학생의 어머니가 필자의 진료실을 방문했다. 아들이 세 명 있는데 그 중 막내가 남자답게 씩씩하지 못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고, 집에서도 혼자서 자기 방에만 있을 때가

많고, 학교친구들이 자기를 놀린다며 학교가기도 거부한다는 것이다. 어릴 적에는 잘 지내왔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서서히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부모도 성실한 편이고 큰 문제점은 찾을 수 없었다. 우선 학생을 한번 만나보자는 필자의 제의에 어머니는 몇 일간 학생을 설득하여 학생을 진료실로 데리고 왔다.

키는 큰편이나 몸씨 여위어 보였고 얼굴은 예쁘장하게 보였다. 필자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몸씨 수줍은 듯이 얼굴을 밑으로 숙이고 앉아 있는 모습이, 필자로 하여금 마치 예쁜 색시와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했다. 왜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지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도 안하다가 얼마 뒤, 자기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씩씩하게 살고 싶은데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기 의지와는 달리 수줍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씩씩하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면담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밝혀내고 다시 노력하면 씩씩해질 수 있다는 필자의 제의에, 학생은 처음에는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고치나면서 거부하다가 끈질긴 필자의 설득에 나중에는 한번 해보겠다고 약속하게 되었다. 여러 번에 걸친 면담에서 학생은 자기가 어린시절 동안 여자옷을 자주 입었던 기억을 되살려 내었고 또 가끔 부모가 자기에겐 “네가 딸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을 기억해 내게 되었다. 또 자기가 여자옷을 입고 여자애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던 부모님들의 모습도 기억하게 되었다. 그 학생이 씩씩하지 못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게 된 것은, 어릴 적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가 딸로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들이 둘 있기 때문에 딸 하나를 낳아서 예쁘게 키우고 싶었는데...” 라는 부모의 말

과, 또 자기가 예쁜 여자옷을 입고 재롱을 떨 때 즐거워 하시던 부모 모습이, 어린시절 동안 학생으로 하여금 씩씩한 남자의 성격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기보다는 여자같은 성격과 태도를 갖게 한 것이다. 즉 자기는 남자로서는 부모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고 여자여야 환영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좋아하는 여자 역할을 은연중에 계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격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어린시절동안 이 학생에게 형성되었던 이런 성격과 태도는 학생으로 하여금 씩씩한 남자처럼 행동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점들이 무의식 속에 숨어서 학생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얼마뒤 부모와 함께 면담하는 자리에서 학생의 이러한 얘기를 들은 부모는 깜짝 놀라



며 아무 뜻 없이 했었던 말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을 줄은 몰랐다고 하며, 결국 자기들의 욕심 때문임을 깨닫고, 학생에게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이제부터는 남자답게 씩씩하게 살아줄 것을 당부하게 되었다. 그후 몇 회의 추가면담을 통해서 남자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그 학생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과거의 영향을 말끔히 지워내지는 못했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노력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후 그 학생은 학교에 잘 다니게 되었다.

지금까지 무심코 던진 부모말에 명든 두 학생의 경우를 말하고 또 치료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다. 두 학생의 경우 모두 현실적인 어려움 밑에는 과거 어린시절부터 지속되어온 부모형제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이 깔려 있었다. 특히 부모들이 무심결에 말했었던 내용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인격적으로 성숙이 되어있지 않은 어린 마음에서 들을 때는 심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린이에 있어서 부모의 위치란 자기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절대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출생후부터 생후 6~7세경까지는 인격형성의 기초과정에 해당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청소년기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칫 무심결에 내뱉는 부모의 말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가 화가나서 “나가 죽어라”고 한 말에 발끈해서 진짜 죽으려고 약을 먹고 가족들에게 발견이 되어 병원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있다.

부모들이 무심코 던져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은 수없이 많지만 흔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왜 저런게 태어나서 속을 썩이나?”

“차라리 내가 죽는게 낫겠다.”

“옆집 친구 반만큼이라도 해라.”

“너만 없으면 우리집이 조용할텐데.”

“앞으로 네가 잘되나 두고보자.”

“이 웬수야.”

“너 같은 것 필요없으니 나가 죽어라.”

“넌 내자식도 아니야.”

“너 같은 것은 밥먹을 자격도 없다.”

“짐승보다 못한 놈”

이런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거부감과 관계 되어있다.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되는 것은 바로 이 거부감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밥만으로는 살아 나갈 수 없다.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어떤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사랑을 받고 있던 어린이도 상황에 따라서는 사랑을 못받을 때도 있다. 출생시부터 본능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잘 처리되지 못할 때는 자기가 거부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분노심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분노심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때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게 된다. 그것이 직접 표현이 되면 비행이나 폭력을 만들게 되고, 마음속에 억압을 해두면 각종 정신장애, 노이로제, 그리고 정신병을 만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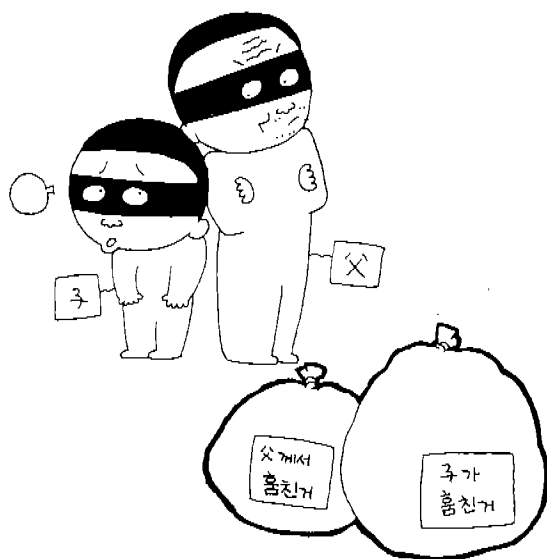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소 부모형제들이 자기를 평가하고 대해 준 것처럼 남들이 자기를 평가하고 대해 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또 과거 자기 부모형제들을 대하던 기분으로 남들을 보게 된다. 이러한 반응을 ‘아동기 정서양상’이라고 부른다. 어린시절 부터 부모에게 환영받고 한 인격체로서 대접받을 때 그런 건강한 자존심과 긍지,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한 인격체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할 때는 자존심과 긍지에 손상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심각한 열등감 속에 휩싸여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게 된다. 어린시절 동안의 부모의 모습은 그 사람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고 나중에는 부모가 옆에 없어도 그 이미지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나쁘게 보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 점을 잘 알아야겠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무리 화가 나고 괴롭더라도 되도록이면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진지한 태도로 대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에도 전혀 야단을 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적어도 말해서는 안 될 내용의 말들을 찾김에 내뱉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다. 무심결에 내뱉게 되는 이런 말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은 우리의 생활 현실에서 흔히 통용되고 있다. 이 말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 바꾸어 놓으면, 부모의 행실이 고와야 자녀의 행실이 착해지며, 자녀의 비행은 부모의 비행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이 말이 정말 옳은 것인가를 따져볼 때 거의 진리라고 생각된다. 왜 반드시 옳다고 하

지 않고 ‘거의’ 진리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자녀의 행실이 반드시 부모의 행동 모범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행동을 크게 본받기 때문이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말이 또 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부모의 씨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즉 부모의 유전적 요인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부모가 행한대로 거둔다는 뜻도 된다. 부모가 콩이도록 행동했으니까 자녀가 콩이 되었으며 팥이도록 행동했으니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의 씨알보다 부모의 행동을 모범으로 삼아 자식이 그대로 본받아 배우는 점을 더 중요시 하는 해석이 된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사람의 행동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느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학습되느냐 하는 논쟁거리와 관련된다.

사람의 행동은 유전적일 수도 있으나 이 문제는 논외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전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전은 교육적 대상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만일 사람의 행동이 유전적이라면 자식의 비행은 부모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유전으로 보기 보다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후천적 학습의 면으로 해석하고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학습되는가? 즉 자녀의 행동, 문제 청소년의 비행은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떻게 배워졌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론이 있다. 우선,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이성적 동물이므로 행동이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어린이가 방안에 있는 휴지통을 들고 나가서 그

속에 있는 오물을 버리고 들어 왔다고 하자. 이런 일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었고 새로 일어난 것이라 할 때 이 행동은 어떻게 해서 배워진 것일까? 이 어린이는 ‘오물로 차있는 방안의 휴지통을 그냥 놔두면 냄새가 나서 방의 공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나머지 오물을 버리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바로 생각을 통해 배워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모든 청소년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긴다면 어른들은 청소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쳐 자라지도 않은 내가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나빠’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도둑의 짓이야’ 등과 같이 생각하면 그런 행동은 결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청소년은 ‘모든 아이들이 여름휴가에 산과 바다로 떠나고 있어. 그런데 난 돈이 없어. 그렇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용돈을 마련해야 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나머지 남의 집에 침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물론, 어른까지도 생각을 거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실에서 한 어린이가 수업 시간이 끝난후 칠판을 닦는 새로운 행동을 했다고 하자. 이 어린이는 ‘칠판을 닦아야만 다음 수업 시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내가 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어린이는 다른 어린이가 이전에 칠판을 닦아서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광경을 본 적이 있었고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보았을 뿐이다. 즉 다른 사람의 행동모범을 본받아서 모방 학습을 한 것 뿐이다. 어린이나 청소년

들이 자라가면서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행동을 배워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행동이 이처럼 남의 행동 모범을 보고 본받아서 배우는 것이라는 연구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 종로 거리를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같이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는 행동을 따라 하는 경우가 있다. 음악회에 가서 연주가 끝난 뒤, 혹은 연극 장면이 끝난 뒤, 또는 연설이 끝난 뒤 한사람이 박수를 치면 모두 따라 치게 된다. 어떤 코미디언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많이 웃겼다고 하자. 몇 일 사이에 그 말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게 된다. 이런 유행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따라 간다고 보다는 거의 맹목적으로 남의 행동을 본받는 것들이다.

비단 말버릇, 물치장, 옷차림과 같은 사소한 행동만이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상당한 수준의 사고와 판단이 요구되는 행동이나 전문적인 행동마저도 남의 행동시범을 보고 그대로 본받아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외과 의사를 지망한 의과 대학생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수술하는 방법을 익혀가려 한다면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환자가 희생될는지 모른다. 그들은 선생님이나 선배들의 수술 과정을 잘 지켜보고 그 시범적 행동을 본받아 배우으로써 쉽게 수술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내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은행에 저축한 돈을 찾아서 시골에 땅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사고와 판단이 요구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땅을 사므로 이를 따르게 되는 수가 많다. 즉 상당한 수준의 사고와 판단마저도 유행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즉 경제적 행위마저도 유행을 따르는 모방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요약하면 사람들의 새로운 행동은 남의 행동을 보고 본따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모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하게 된다는 뜻이다. 청소년은 어른의 행동을, 학생은 선생님의 행동을, 후배는 선배의 행동을, 소설을 읽고 있는 학생은 그 소설에 나오는 작중 인물의 행동을 본받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닮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남편의 먹을 못 본 여자는 자식의 덕도 못 본다’는 옛 속담이 있다. 생각해 보면 행실이 끝지않은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아온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한 나머지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위의 속담은 아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로 배운다는 것을 조상들의 경험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흔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훈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저녁 늦도록 거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일찍 집에 돌아오너라” “젊었을 때 공부해라. 때늦으면 공부할래도 허사이다” “부모생전에 효도해라 돌아가신 후에 가슴친다” 등등. 그러나 일찍 집에 돌아오라고 훈계하는 어머니 자신이 늦게 돌아와 입에 서는 술냄새까지 풍기면서 꾸짖고 있다면 그 어머니의 말을 들을 자녀가 어디에 있겠는가. 평생토록 책 한번 읽지 않는 아버지가 투전판에서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자녀들을 보고 내 꼴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훈계한다고 해서 그 말을 고맙게 들을 자녀들이 있을 수 없다. 조부모를 괘시하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부모께 효도하라고 강요한들 어느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들겠는가. 자녀들은 부모의 꼴대로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익히 안다면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허튼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내 모습이, 그리고 내가 하는 행실이 곧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심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부모들은 참으로 일거수 일투족에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돈을 아껴서 써라” “낭비하지 말라”는 부모의 가르침은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녀가 “부동산 투기나 일삼은 주제에...” “세금포탈이나 해서 벌은 돈인걸 뭐...” 하는 식으로 비아냥 거린다면 그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부모의 “돈을 아껴쓰라”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진실한 교훈적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부정한 부모의 말은 진실일지라고 먹혀들지 않는다.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냐? 그것이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라고 부모가 자신의 부정을 자녀들 앞에서 변명한다 해도 그 말은 아무 효력이 없다. 청소년

자녀들은 솔직하고 깨끗하다. 설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애써 벌었다고 해도 그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벌은 것이라면 자녀들은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를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무서운, 그리고 몸서리치도록 차거운 부모에 대한 반항인가? 그러면서도 어느 샌가 자녀들은 그 부모의 행실을 본뜨게 된다. 이런 자녀들은 학교에서 옆자리 학생의 학용품을 슬쩍해 가지고 오게 된다. 좀더 자라면 독서실 골목에서 또는 학교 옆에서 다른 학생들의 용돈을 빼앗게 된다. 이런 자녀들의 부정적 행동은 부정적인 그들의 부모가 가르친 것이다. 그 부모들은 그들 자녀에게 “그것은 부정이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즉 그런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정적 행동을 시범해 보인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들의 시범을 보고 배웠을 뿐이다.

이처럼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 시범을 본받는다.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은 기성 세대의 행동 시범을 본받는다. 이렇게 볼 때 부모들과 기성 세대들이 어떻게 행실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학생들까지도 회장을 뽑는데 선심과 뇌물이 오고 간다는 것은 어른들의 타락한 선거가 만들어 놓은 결과이며, 십대 청소년 비행의 증가 추세는 기성 세대의 범죄 행위가 그 거울인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범죄 행위는 어른들이 만든 퇴폐적인 만화와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비디오 테이프 때문이며, 청소년들의 도덕적 타락은 상업주의에 빠진 작가들이 부도덕하고도 호색적인 장면들을 소설, 연극, TV 드라마 속에 엮어놓은 것이 그 원인일 수 있다.

실제로 ‘황금박쥐’란 만화를 본 어린이가 어머니의 치마를 쓰고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려 죽은 예가 있었고, TV의 수사극을 보

고 범죄 수법을 배웠다는 청소년이 잡혔으며, TV에서 인질극이 방영되면 몇 일후 거의 똑같은 수법의 범죄가 또 일어나고 있다. 이래도 어른들은 상업적 목적 때문에 패륜적이고 부도덕한 내용의 드라마들을 TV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무제한적으로 보여줘야 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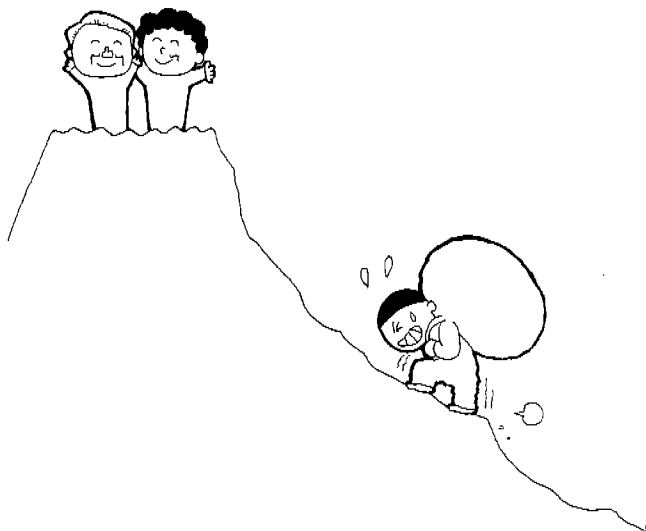
어른은 젊은이들의 모범이며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자녀를 건전하고 지적이며 예절바르게 기르려면 부모들이 먼저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어느 집 어린이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깨서 주인이 어린이를 꾸짖고 있었다. 그때 어린이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소리쳤다. “돈 물어주면 될거 아니요! 그까짓것 가지고 남의 아이 기죽일게 뭐 있어요!”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남의 집 유리창을 깨뜨려도 좋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부정적이며 반사회적인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기가 걷다가 넘어지면 엄마는 큰일날세라 황급히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준다. 아기가 “엄마! 쉬!”하면 길거리에도 오줌을 누인다. 이 엄마는 자신의 아들이 나약한 어린이, 공중도덕을 무시하는 정년으로 자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산과 바다에 가면 아이가 귀여워서 목말테우고 다니는 아버지들을 가끔 볼 수 있다. 그러나 귀여운 것 만큼 제대로 버릇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자라서 부모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대학 입학 시험날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땀다. 땡땡보 어머니가 아들이 뛰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데도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의 허락없이든 어떤 사소한 일도 혼자 결정하고 실천할 수 없는 아들로 키운 것이다.

혼자 일어나게 하자. 지정된 곳에 용변을 보게 하자. 혼자 걷게 하자. 혼자 뛰게 하자. 그리고 자란 후에는 혼자 스스로 건설하고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하게 하자. 자녀가 그렇게 되게 하려면 부모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 결코 부모가 자녀가 저지르는 비행의 모범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부모의 높은 기대 자녀의 스트레스



모든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꽃이요 희망이다. 자식의 성공을 기대하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자식에 대해 기대가 정도 이상으로 높으면 문제가 된다. 정도 이상이란 말은 자식의 능력에 비하여 부모의 기대가 너무 높다는 뜻이다. 어느 나라

의 경우이나 부모가 자식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들 만큼이나 자식에 대한 기대가 높은 부모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반상제도의 전통이 있었다. 양반 계급에게 항상 억눌려 압박받으며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던 상민계급은 자식들의 세대에서나마 그런 고난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한이 있었다. 그런 한을 풀 수 있는 길은 우리나라와 같은 학력 사회에서는 자식에게 공부를 시키는 길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모들은 너도 나도 자식들을 대학까지 공부시키려고 애를 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전통에서 온 결과적 산물이다. 이런 전통적 특징 속에서 부모들은 자신이 배우지 못해 풀지 못했던 억울한 한을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는 심리적 경향이 강하게 있는 것이다.

어느 부인이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외아들과 두 식구만이 살았다. 그 아들이 자라서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생활 수단은 재봉틀 하나를 가지고 바느질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만일 재봉틀이 없어지면 이 두 식구는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은 생명선인 재봉틀마저 팔아서 아들의 입학 등록금을 마련했다. 우리의 부모들은 이처럼 처절하도록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크고 높다.

이런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성공 기대가 그만큼이나 높고 크기 때문에, 세상을 그런 기대를 가진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왜경에게 잡혀 부당한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부모는 자식이 변호사가 되기를 바랐으며 권력이 없어서 억울한

을 당한 부모는 자식이 법관이나 고급관리가 되기를 위하여 한 때 대학의 법학파가 제일 인기가 높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후 사회적 지위와 권력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풍조가 일자 대학의 경상 계통의 학과가 인기를 가지게 되었다. 옛날에는 사농공상의 순차적 사회 계급의 전통 때문에 인기가 없었던 공학 계통의 학과가 요즘은 대학생들에 의하여 선호되기도 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가치 기준으로 오늘 날을 사는 자기 자녀들의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가치 기준과 자신들의 세계관을 강요하고 기대해서는 더욱 안된다. 그것은 부모의 관점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며 세상을 잘못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통학교만을 졸업하고도 면서기의 직책을 충실히 해내고 정년을 마친 아버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학을 나오고도 아무 것도 할 줄 모른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열 일곱살에 시집을 가서 대가의 큰살림을 해내고 살아온 어느 어머니는 요즘의 신부들이 밥도 지을줄 모른다는 논리로 젊은 주부들의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설사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면사무소의 행정 공문을 기안하는데 서투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한강대교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으며 큰 술에다 불때고 밥하는대는 서투른 새신부라 할지라도 새로운 고급 요리를 더 잘 해낼 수도 있는 것이다. 한쪽만 볼 줄 알고 다른 한쪽을 보지 못하는 부모들의 눈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독촉을 한다. 귀여운 손자를 왜 주판학원에 보내지 않는냐고... 아들은 말한다. 요즘은 계산기가 나와서 수판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할아버지는 그래도 수판이 계산기 보다 편리하고 빠르다고 강조한다. 그 할아버지는 상업학교 시절에 수판과 부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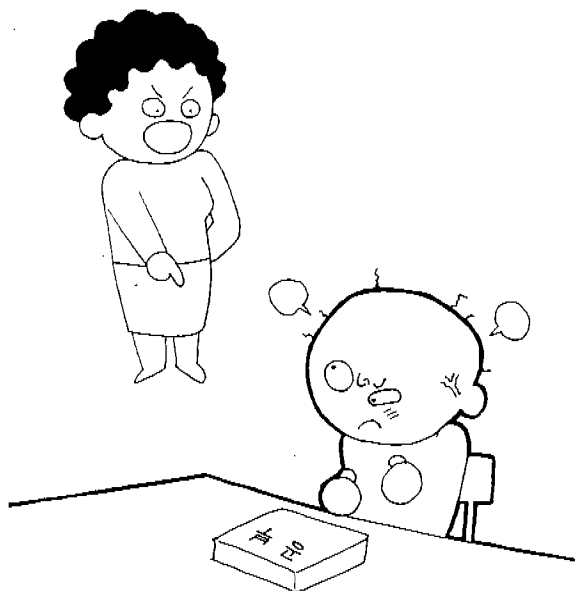
능해서 은행에 취직되었고 그 직업으로 정년을 하신 분이다. 부모들의 옛날 눈은 이처럼 오늘을 보는데 부적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그리고 자녀들의 세계를 자신들의 눈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사고의 틀로 보고 생각하려고 고집을 부려도 되겠는가? 돈 잘벌기로 알려져 있는 의사라는 직업이 인기가 덜 해가고 있다. 의과대학이 많아져서 의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법관보다 건축업자가 더 잘 살 수도 있게 되었다. 아직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지만 교수의 월급보다 청소부의 월급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도 곧 닥쳐온다.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을 반드시 대학에 보낼 이유가 있는가? 과거 부모들이 살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세계관으로 오늘을 사는 자녀들을 보아서도 안 되며 그런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자녀들의 성공을 기대해도 무리이다.

자녀들은 그들의 세계가 있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수준을 자녀들에게 강요한다면 자녀들은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부모들의 관점과 기대 수준이 자녀들의 생각과 능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다. 땅바닥 저쪽에 말뚝을 박아 놓고 이쪽에서 고리를 던져서 말뚝에다 걸기를 시켜보았다. 던지는 지점의 거리는 던지는 사람이 자유로 선택하게 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지점을 택하여 던짐으로써 거의 성공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률은 높지만 성공의 보람은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다. 가까운 거리에서 던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먼 거리에서 던지기를 스스로 택함으로써 성공률이 아주 낮았고 거의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였을 때 큰 보람을 느꼈

을 것이다. 문제는 계속하여 실패하면서도 먼 거리에서 던지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는데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는 거리에서 던지기를 택하여 실패감 성공감을 적절히 느끼고 있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목표를 합리적으로 택하는 경우의 사람들일 것이다.

이 실험의 예를 대학 입학 시험의 경우로 바꾸어 말하면 첫번째 경우의 학생들은 아주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하여 문제없이 합격한다는 것이다. 이런 학생들은 보람보다는 합격에 의미를 두거나 아니면 조그만 보람도 값지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 경우의 학생들은 일류대학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공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



왕에 낙방할 바에야 어려운 대학을 지망했다가 떨어졌다고 합리화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려운 대학을 지망하게 되는 것이다. 몇 번이고 시험을 쳐도 질 때마다 낙방한다면 그런 대학을 지망해서 무엇하겠는가? 결국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이다. 이런 학생들처럼 능력은 없는데 포부 수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대학뿐 만이 아니라 인생도 실패하게 된다. 세번째 경우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알맞은 대학을 지망하여 적당한 성공감을 느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이다. 자녀의 학습 능력은 낮는데 부모의 기대 수준은 높아서 자녀를 꼭 일류대학에만 보내겠다고 다짐하고 자녀에게 그 높은 목표를 실천하라고 강요하는 경우의 부모들이 바로 실험의 두번째 집단의 사람들과 같은 부류이다.

부모의 기대는 높고 자녀는 그 기대에 부응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죄책감마저 느끼다가 드디어는 반항하게도 된다. 결국 자녀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 때문에 소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다름아닌 신경증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이다. ‘고3병’이라는 것이 이런 증상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신경증이란 신체적 결함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이 아니다. 심리적 원인에 의하여 심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신체적 및 행동적 증상으로까지 나타나는 병을 말한다. 고3병에 걸리면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기도 하고 배탈이 나기도 하며 소화가 안되기도 하고 주의력과 기억력이 없어져서 공부했던 것도 알 수 없게되며 무기력해 지기도 한다. 고3병은 거짓이 아니다. 즉 머리가 아프지도 설사가 나지도 않는데 거짓으로 아프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진

짜로 머리가 불덩이같이 뜨거우며 정말로 설사가 나고 배가 쓰리도록 아프다. 내과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서 치료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 정신과에서 치료받거나 심리 상담가에게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 때문에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의 결과가 고3병이라는 신경증이 된 것이다.

어느 날 한 부인이 딸을 데리고 필자의 연구실에 함께 찾아 왔다. 그 딸은 필자가 봉직하고 있는 대학의 2학년 학생이었다. 그 여학생은 필자의 강의를 수강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의 어머니는 긴장한 얼굴이었고 화가 난 말투로 다짜고짜 필자를 보고 “내딸 살려내시요”라는 것이었다. 자초지종을 들어 보니 그 여학생의 부친은 서울대학의 교수이기도 하여 딸을 보고 항상 서울대학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머니 자신도 웅당 딸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뒷바라지 해 왔다는 것이다. 결국 고3때 병이 나서 공부를 못한 나머지 서울대학에 떨어졌으며 재수하여 “그래도 괜찮은 성균관대학에 들어와서” 마음도 잡고 일년이 지났는데 “교수님이 학점을 주지 않아서 이애의 병이 다시 도져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병이 무슨 병이냐니까 소화가 안되어 먹지를 못하고 우울해지는 병이라고 하였다. 이 여학생은 고2 때부터 교체 음식은 소화가 되지 않아 먹지 못했고 우유로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대학 2학년이 된 아직까지도 주로 우유를 마시면서 살아간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유조차도 마시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필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학점을 주든지 병을 고쳐 내든지 하라는 것이었다. 필자가 ‘학점을 안주었기 때문에’ 소위 고3병이 재발한 셈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부모의 허망한

높은 기대가 결국 딸을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었다. 소화가 안되어서 ‘죽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이제는 어른이 다 된 여대생을 위해 교수와 학업에 대한 상담까지도 부모가 대신해서 해주게 되었으니 이런 ‘어른 아이’를 무엇에 쓰겠는가? 이 여학생은 장차 무엇을 먹을까요? 어떤 옷을 입을까요? 숙제할까요? 시집갈까요? 어떤 남자에게 시집갈까요? 아기 낳을까요? 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어머니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능력 수준을 잘 알고 그 수준에 부모들의 기대 수준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혼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녀들의 세계는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세계까지 부모가 살아줄 수는 없다. 자녀들의 세계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들 자신의 다리로 걸어 나가서 그들 자신의 손으로 헤쳐 나가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부모들이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모들이 살아온 세계가 아무리 험난했고 불행했다고 해도 이제 자녀들에 의해서 보상받으려 해서는 안된다. 결코 부모들이 자녀들의 어깨 위에 앉아서 그들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 가려 해서는 안된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영원히 자신들의 품 속에서 놓치지 않으려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로받거나 자녀들이 떠나감에서 오는 외로움을 두려워 해서도 안된다. 부모는 부모의 세계를 살며 자녀는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 할 때는 서로가 불행해 진다.

어느 30대 후반의 부인이 있었다. 남편은 어느 회사의 중견 사원으로 외국 출장이 많아서 거의 떨어져 살고 있다. 중학 1학년의 맏아들과 국교 6학년의 차남이 있는데 두 아들 낳은 후로 임신 중절 수술을 세 번이나 했다. 그리고 이제 또 임신 8개월째인데 남편은 이번에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으라는 것이었고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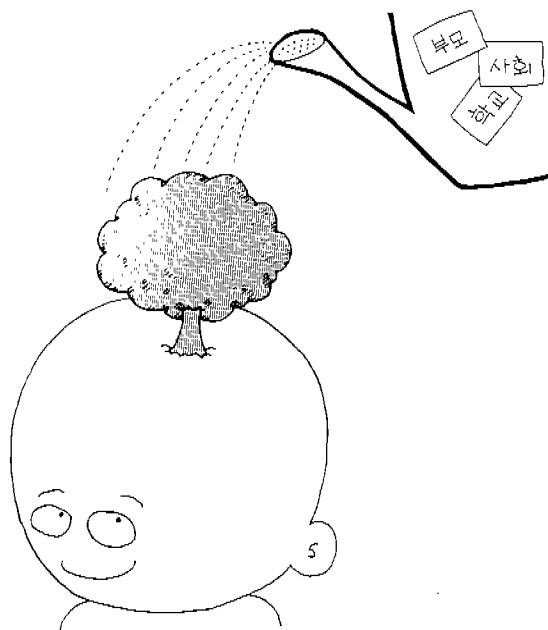
은 이번만은 낳아야 되겠다는 것이다. 왜 꼭 출산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그전의 경험으로 보아 이번에도 낙태시키고 나면 꼭 우울증에 걸려서 입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편에게 왜 출산해서는 안되느냐고 물으니 이제 자기네는 두 아들도 성장시켰고 살림도 늘어났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윤택해졌고 고생도 끝났으니 이제는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바, 이제 10년이 넘게 있다가 자식기르는데 다시 매달린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잘라서 말해다. 여러가지 상담 끝에 얻은 결론은 이런 것이었다. 부인은 남편과 두 아들의 뒷바라지에 열성을 다했으나 이제 남은 것은 ‘나혼자’라는 외로움과 소외감 뿐이라는 것이다. 남편은 늘 외국에 있으니 별거나 같고, 두 아들은 벌써 자라서 어머니의 품을 떠났으니 허무한 느낌들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 집안 일은 파출부가 떠맡고 있으니 이 부인은 도대체 집 안팎에서 말을 역할이 없는 것이다. 이 부인은 이제 인생의 정체감이 없어진 것이다. 즉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다. 즉 아이를 하나 또 낳아서 거기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찾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자녀를 자신의 세계에다 묶어두는 방식이며 자녀의 삶 때문에 자신이 살아갈 의미가 있고 심지어는 자녀 덕분에 내가 산다고 하는 심리적 기제이다. 그 부인은 그래서 이번에는 꼭 출산하고 싶었고 그전에 그랬듯이 낙태시키면 늘 우울증에 빠졌던 것이다. 이제 이 부인은 삶의 의미, 그리고 생활에서의 역할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즉 자신의 세계를 갖는, 자신을 위한 역할을 함으로써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결국 여러가지 많은 의논

과 상담 끝에 남편은 어린이 옷가게를 차려주기로 합의했다. 부인은 그 후 태아를 낙태시키고 옷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에도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 자녀의 능력에 알맞는 합리적 기대에 만족해야 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권력인가? 돈인가? 자신이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보람을 느끼며 만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행복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능력이 모자라는 자녀를 꼭 대학에 보내려고 하다가 실패감만을 안겨줄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를 부모로부터 독립시켜야 하며 부모 또한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서로는 서로의 세계를 살아야 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누가 살펴야 하는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걱정거리 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아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연일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 학력위주의 교육풍토와 기형적으로 비대된 학부모의 과잉교육열로 인해 야기된 청

소년의 자살, 또한 예비성인인 오늘의 청소년이 보여주는 성폭행, 약물남용, 살인 등 청소년비행 뿐 아니라 청소년기 정신장애의 하나인 신경증, 우울증, 정신병 등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지 묘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인생에 있어서 희망과 절망의 교차속에서 고민과 불행을 함께 경험하는 정서적 폭풍우의 시기이며, 동시에 양심과 충동의 갈등속에서 자아의식을 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충동과 갈등을 건전한 방법으로 적절히 해소시키지 못할 때에는 반항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므로 청소년을 직접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결국 본인 자신에게 있지만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살펴 주어야 한다. 즉 가정에서는 부모형제가 되겠고, 밖으로는 학교생활 지역사회를 위시하여 국가적인 차원으로 청소년을 돌보아야 한다.

우선 가정생활에서 부모가 살펴야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의 교육 특히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가정교육은 누가 시키는 것인가? 물론 부모가 가르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에 대한 질문에는 주저하게 된다.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속에 “요즘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다”라는 귀절이 있는데 현재에도 이런 이야기가 통용되는 것을 보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을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이나 예전이나 우리의 2세대에 대한 교육은 똑같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인류가 기원하여 현재까지 인간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 즉

자녀와 부모, 인간관계, 인간의 성장발달을 돕는 방법, 정상적인 심리상태, 사람과 사람사이의 효과적인 의사전달법, 인간관계에 미치는 권력의 영향, 대립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교육방식도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인식을 달리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가정교육이 잘된 아이들을 보면 딱일부터 안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그러면 부모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첫째로, 옛말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의 사이가 화목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기 마련인데 부모끼리 사이가 나빠 서로 헐뜯고 남탓을 하게 되면, 이것을 배워 나중에 청소년시기에 가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만 급해져 참지 못하고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두르는 예가 흔한 것이다. 남편의 잘못을 감싸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녀에게 아버지를 욕하면서 자신은 희생자라며 뉘드리하는 어머니의 경우를 보면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아버지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갖게되어 이런 적개심의 분출을 비행행동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어떤 가정을 보면 부부의 불화를 잘못 처리하여 한 아이는 아버지 편이고 한 아이는 어머니 편이 되는 분열된 가정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다른 편 부모에게 죄의식을 갖게 되고 같은 편의 부모에게 대한 부정적 감정은 억압을 시키게 되어 청소년기에 와서 감정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의 눈치나 보고 조금 어려운 문제다 싶으면 포기하는 나약한 사람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싸움에 자녀등이 터진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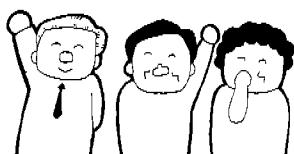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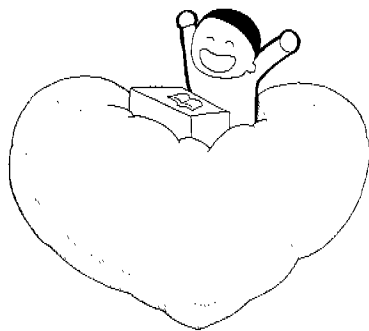
둘째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옛날부터 자녀교육은 집안

살림을 하는 어머니가 맡는다라는 통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인식에 대한 반론으로 최근 연구에서 보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10세 이전까지는 어머니의 영향이 크지만 10세 이후부터는 아버지의 영향이 점차 커진다는 보고이다. 이것은 현대사회에 와서 더욱 더 절실했다. 핵가족화되면서 조부모와 친척들의 역할분담은 작아지고 아버지와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아버지의 일거일동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아버지를 모방하려는 행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버지 목소리를 내보기도 하고, 아버지 옷도 입어보고 물레 담배도 피워보는 등 흉내를 내기 마련인데 아버지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술을 자주 마시며 술주정하고, 음주운전에 새치기나 하는 등 공중도덕을 잘 무시하며, 자녀와 대화가 없는 아버지, 이렇게 자녀에게 부정적인 면을 보이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심상이고, 음주 및 약물남용을 하게 되고, 고성방가에 남 몰라라하는 이기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는가 하면, 친구관계에서도 대화로 서로 이해하기 보다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모범학생을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먼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접근하여 포용적인 태도로 부모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수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거짓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자녀에게 더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은 부모 자식간에 불신감을 조장하여 남을 속이고 진실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근원이다. 억지로 자녀에게 자신이 위대하고 자녀를 위하는 사람인척 하기보다는 하나의 인간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것은 칭찬을 아끼지 말고

잘못된 것은 받아주지 않는 확실한 태도를 자녀에게 전달하게 되면 청소년이 되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타인에 대한 태도도 우물쭈물하지 않고 자신감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문제청소년 위에 문제아버지가 있고 모범청소년 위에 모범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겠다.

셋째로, 상벌에 대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영국 속담에 “자녀교육에 있어서 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물론 무조건 매질을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매를 아껴도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자녀를 좋게만 대하다 보면 오히려 자녀의 앞날을 망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는 가장 먼저 이것이 야단을 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판단을 잘 내려야 한다. 그러나 별일도 아닌 일로 자녀를 자주 꾸짖게되면 청소년시기에 가서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지 못하고 수동적이 되어 심하면 사회공포증같은, 남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또 부모가 분을 참지 못해 감정적으로 때리는 경우 심한 모멸감을 갖게 되고 부모 자식 사이에 신뢰감이 없어져버린다. 이럴 때 청소년들은 충동적으로 무조건 가솔하여 비행청소년과 어울리게 되고 음주, 흡연, 약물남용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종종 있다. 청소년은 감정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네가 잘하는 것이 무어나? 항상 그 모양 그 꼴이다” “누구집 애는 잘도 하는데 너는 그 모양이나?” “네가 그 정도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등의 자존심을 몽개는 꾸중은 피하여야 한다. 청소년은 그래도 이성적인 판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신이 감정을 억제하고 화가나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서 벌을 준다는 것을 느끼게 하면 당장에는 적개심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고마움을 가지게 될 것이다. 평소 부모자식간의 애정있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면 짧고 따끔한 벌은 큰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가정교육이 잘 되어 모범적인 청소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장 큰 고통인 입시지옥이다. 얼마나 피로우면 지옥이라고 표현했겠는가? 이 문제는 단지 수험생 자신만이 겪는 문제만은 아니다. 자녀의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부모도 같이 불안해져 초조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여 모든 일이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 말하자면 부모도 제 정신이 아닌 경우가 있어 정신과 전문의를 찾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 방책없이 불안에 떠는 것보다 대

부분의 수험생의 문제들이 성적의 부진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선 찾는 것이 이 어려운 가족전체의 위기감을 이겨내는 것이다.

첫째로 흔히 보이는 수험생의 양상은 정신이 멍청해지고 식욕도 떨어져 먹지 못해 기운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탈진상태까지 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무리하게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는데 이때 잠을 쫓기 위해 각성제를 먹는 예가 흔히 있다. 이때 잘못하면 신체질환이나 심하면 정신질환도 생길 수 있으므로 빨리 탈진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며칠간 꼭 쉬게 하면서 좋아하는 과일이나 음식을 주어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후에 자녀와 함께 탈진된 동기를 알아보고 해소를 시켜야한다. 각성제를 남용하여 수면리듬이 잘못되었다면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주고 너무 무리한 계획으로 인한 강행군이 원인이라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점을 이해시키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학습태도를 시정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두번째의 형태는 공부를 해도 해도 안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열등감마저 생겨 자포자기상태로 빠져 절망상태가 되는 경우이다. 이때 부모에게 비난을 받게 되면 충동적으로 자살까지 하는 예를 볼 수 있다. 부모가 칭찬에 대해 인식한 가정에서 흔한데 부모의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생각이다. 이때는 부모가 자녀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아주 쉬운 과제를 주어 성취감을 고취시켜 사기를 올려 웃음을 되찾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번째는 공허감에 빠지는 경우다.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와 헤어졌을 때나 가치가 상실되었을 때, 대상상실로 인한 슬픔으로 외로움과 허탈감

을 느껴 모든 일이 무의미해져 현실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다. 이때는 상실된 대상의 대리체를 찾아야 한다. 가정외의 이성친구에게 향했던 마음을 가정내 부모나 형제 친척으로 방향전환을 시키고 다시 삶의 가치를 찾도록 하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네번째로는 입시라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미리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예기불안으로 초조해져서 마음만 급해 공부에 전념이 안되고 잠념만 생기는 경우이다. 이것이 잘 조절이 안되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도 하며, 손발이 저리며 일시적인 마비 증상들을 보일 수도 있다. 우선 불안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이 때 부모들은 흔히 수험생이 신경질을 부린다고 야단을 치거나 잔소리를 하기 쉬운데 이것은 불안을 가중시키므로 피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신경질을 받아주고 열심히 경청해줌으로써 불안을 발산시켜 줄 뿐만 아니라 불안의 근원을 알게 되기도 한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사랑과 신뢰감을 가지고 인간적인 대화를 통해 그들의 세계를 알고 건설적으로 대처해나아가는 데에 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에서는 누가 어떻게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살펴야 하나? 학교생활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 그리고 동료학생들이 정서적 갈등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도와줄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비교적 시설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학교보건소나 학생상담실을 갖고 있고 상담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신적인 문제는 서로 노력만 한다면 쉽게 발견되고 문제해결도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원인까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감추려고 하거

나, 자신의 문제는 남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청소년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해결을 하는 데 많은 난관이 있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괴로움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다면 해결책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 학업부진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위압감이나 부담을 덜어주고, 대인관계의 곤란이 있을 때에는 개인지도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불안의 원인적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수치심이 많고 위축되고 소외된 학생들에게 집단활동의 기회를 늘여주고, 또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소년 기관에 상담의뢰를 하거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찾게하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이 힘써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 학생들의 정서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여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사후약방문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생활에서 청소년에게 교육 및 선도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은 성에 대한 문제이다. 청소년시기는 성적인 충동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적 호기심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생리와 성심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 호기심이 더욱 조장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서적이나 음란비디오 등 무절제한 성개방화가 청소년의 임신이나 성폭행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임신위주의 교육보다는 집단활동을 육성하여 자연스럽게 이성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성적충동을 음성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건전하게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임무라고 하겠다. 학교는 학생선도의 1차적인 기

관이다. 무조건 처벌위주로 처리하기보다는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같이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학생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의 문제는 자신이나 일개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앞날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다. 입시제도의 미비점도 보완을 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그리하여 그들이 청소년을 직접 맡고 있는 부모들과 교사들을 교육 훈련 시킴으로써, 갈수록 복잡하고 심각해져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살피도록 해야 할 것이다.